유구몽쳔긔 십일

Carpentier

옥누몽 권지십일

송거제셜낭랑호 분귀의 취야거병

셜시의련낭이쳘자긔ᄒᆞ직ᄒᆞ고ᄒᆡᆼ내을모ᄒᆡᆼ할셔샹
각ᄒᆡᄃᆞ잉의손병이계셔샹군을복로시어불조와
오실지라니이제낭으로가복연술티오황셩으로
가셔기다리ᄂᆞᆫ타ᄒᆡᆼᄒᆞ여산동지경의이르니길의
뒤ᄯᅡᆯᄒᆞᄂᆞᆫ빅쳥이련ᄒᆞ여쳔옥의뒤ᄲᅧᆼ에ᄂᆞᆫᄯᅡ줄거
ᄂᆞᆯ셜낭이ᄃᆡ경ᄒᆞ여죽야ᄒᆡᆼᄒᆞ여황셩빅여리밧
리빗쳐쳥화란의가분듁란죵이빗녀일인도엽
거늘ᄯᅡ시산화당을ᄎᆞ자ᄒᆞ오미암죵이쥭란ᄒᆞ며
쳘의아ᄃᆞᆯ녀츈이넘거ᄂᆞᆯ리실을비러잇실셔힝
여룡노의츅상ᄒᆞ여홍야ᄃᆞ룡쥴녀본밧기오란
줄녀츙인이세지여보이너문을닫ᄂᆞᆫ이거ᄂᆞᆯ이잇

던어와외가증인을만나니취음은외회ᄒᆞ다가
수시보니그인이라쳐로빤겨빗최숙작지못ᄒᆞᆯ너
가셔셜낭의지의다여가빨니낭쳔이치관오로오셔
물이로니셜낭황빵이러당와나와부복ᄒᆞ온뒤
키회누주불목로시니가서죽왈이난신첩의동
셜지쳔이니내논로차여홍화로권북을줄여나
이다나와작별반나면ᄉᆞ연을별 이죽달줄나뒤
회그셜키아질을ᄉᆞ황ᄒᆞ이ᄉᆞᆫ과을죽ᄂᆞᆫ왈이진젓
철취가인이옥ᄉᆞᆫ환난을오옴인을뻔ᄒᆞ더그산간
와오옥ᄒᆞᆫ난그옥로시니셜낭이죽ᄒᆞ러불러어ᄒᆞ라
복모을빌고비ᄒᆞᆫ바엄서실강을조아ᄒᆞᆯ보로남
북의죽로쥐혼이어지환난을쳐ᄒᆞ비러엇
그키죽고ᄉᆞᆫ을어죽만지ᄉᆞᆫ은그이ᄉᆞ랑ᄒᆞᆫ시더라악

조의도셩빅셩이되티몯ᄒᆞ노라산ᄒᆞ야앙쳔ᄒᆞ후신연덕의
모녀샹이렵ᄒᆞ엿시나의와예ᄲᅡ뒤을ᄃᆞ로주ᄒᆞ혀여모
타왈녀의이갓치모녀ᄅᆞᆯ낸호병을부ᄅᆞᄂᆞᆫ자시타
ᄒᆞᄃᆞ삿치나을녀의길왈터후ᄒᆞ미신곳즐ᄒᆞᆫ나
너뎌로가라ᄒᆞ난나ᄒᆞᆫ녀곳、지불을노와연거와화
경이ᄌᆞ옥ᄒᆞ니노와ᄒᆞ여ᄂᆞᆫ호병이시야삼경의산앙
죵을네와싸ᄃᆞ함셩이견죵ᄒᆞ니와우지인이져조븟
돌ᄃᆞ울녀아모디혈ᄒᆞᆯ모ᄃᆞ던니호장이되호왈환
태후이곳의뎨시다우태ᄯᅩ쳐가졍ᄌᆞ귀ᄌᆞᆫ을되리
라ᄒᆞᆯ녀에와싸나티휘ᄎᆞᆫ병을보시타엳에병동지아
나ᄉᆞ왈예ᄯᆞᆯ의허엿시뒤살어옥복이ᄒᆞᆫ어보ᄅᆞᆸ
ᄲᅡᆫ쏫ᄒᆞᆯ다ᄒᆞᆯ니게비ᄒᆞᆫ후이ᄋᆞ여젼나ᄲᅡᆫ승쳔ᄌᆞ의량ᄒᆞᆫ현
모후라엇리ᄒᆞ야오평리의게살기울빌ᄂᆡ

오이 ᄎᆞᆺ시나외 쥭어 안신지 ᄒᆡᆼ 나ᄂᆞᆫ 쥭기을
형허엿나ᄋᆞ 공인들은 황후을 보호허여 ᄐᆡ일 황
상게시ᄂᆞᆫ ᄎᆞᆺ골 치허 안보허ᄂᆞ 낭의 욕년을 알외다
ᄉᆞᆼ셩이 독병이라 인ᄌᆡᆨ으로 어엇지 허여 모ᄅᆞᆫ지 ᄒᆡᆼ은지
훨이 영셔일ᄂᆞᆫ 반이 져ᄒᆞᆫ 일을 다ᄉᆞ시 뵈앙지 못ᄒᆞᄂᆞᆫ 쥭
어갓ᄉᆞ 병ᄋᆞ야 두의 도라가ᄂᆞᆫ 혼이 어엇지 ᄂᆞᆫ을 감으허 황
상의 무ᄉᆞᆼ지 통을 씻ᄎᆞ리로다 바라건ᄃᆡ 아도이 술
퇴허ᄉᆞ 세ᄅᆞ 욕회을ᄂᆞᆫ 보도ᄂᆞᆫ 승졀반ᄉᆞ 쥬시ᄂᆞᆫ 날 ᄇᆞᆯ을
버히시ᄅᆞ 면완을 밧비 ᄉᆞ쥬여 ᄒᆡ연이 ᄂᆞ라시게 ᄒᆞ소
셔허라 연커의 자결터시며 ᄒᆞ신ᄃᆡ 황후 비병이 일ᄉᆞ시
외봇들ᄅᆞ 뒤ᄉᆞᆼ 통쥭을 ᄇᆡᄅᆞ 왈 낭ᄅᆞ 외져 인지 셜쥬시
므로 어엇자 이러터실 망국지표을 ᄂᆞ타서 ᄂᆞ가일

시지욕을 ᄎᆞᆷ지 못ᄒᆞ되 소양국지도을 나되 상여가 환
나ᄒᆡ상의 ᄲᆞᆼ연이 보ᄅᆞ시ᄂᆞᆫ 화상의 동박ᄅᆞᆯ 실졍
져을 ᄉᆡᆼ각지 아내시나니가 ᄒᆞᆼ아의 젹ᄅᆞ수인ᄃᆡ시
므로 ᄉᆞᆨ빅ᄂᆞᆫ 등ᄒᆡ 덧업시 ᄲᆞᆼ하지 아니 실지여로면
울물ᄂᆡ ᄎᆡᄂᆞᆫ 날은 우리 황상 환ᄉᆞᆼ 지토조어ᄃᆡ
서ᄃᆡ나니가 뒤ᄒᆞᆺ드록 비ᄎᆡᆨ을 ᄉᆞ왈 기어지모 존되옵
ᄲᆞᄂᆞᆫ 젹셰이 갓치 위ᄒᆞᆸ더ᄅᆞ 주ᄒᆞᆫ의 일인도 ᄲᆞᆯ을 ᄯᅥ
업ᄉᆞ아 오되 실을 내ᄒᆞᆫ나 어지ᄒᆞ되 오ᄃᆡ ᄉᆞᄲᆞᆼ거ᄉᆞ로
ᄒᆞ연니 일ᄅᆡ ᄉᆞ면이 되ᄒᆞ 변ᄌᆞᆼ의 복지ᄌᆞ왈 일ᄒᆞ
급ᄒᆡ온지라 신쳡이 비러 신의 ᄉᆞᆼ이 엄ᄉᆞ오나 호병은
조욕ᄎᆡ울 갓가이 못오게 ᄒᆞ여 욕이 ᄒᆞ온ᄃᆡ 복ᄲᆞᆼ
ᄂᆞᆫ 신의 옷을 박근이 업으시ᄆᆡ 화ᄅᆞᆯ ᄉᆞ욕ᄎᆡ울 인
보ᄒᆞ시 (변)신쳡이 낭ᄃᆡ신ᄅᆞᆯ 여 조변을 ᄉᆞᆼ을

니다언파의자거엄은옷슬버셔밧조러ᄃᆞ리더니
이ᄂᆞᆫ텬실의구너던가시라뒤홋어허넘으ᄉᆞ오ᄋᆞ사
갈아슈ᄒᆡ낭은종심이지극ᄒᆞ나너나ᄒᆞ미야불주이경
을얼엇지추ᄅᆞ시주촌이록상ᄒᆞ여살녀줄티오셜난이
가연귀발낭ᄃᆞ이곳치생각ᄒᆞ시본만쇠황야울어
즈서시로손이다한번래이절을시면이ᄂᆞᆫ여쫑축인
의혈쳡현열어라한뒤조ᄅᆞᆫ황제빽등칠일
네욕을보쳐시다찬ᄅᆞᆫ졀쥐여화줄면을서엘시
저욕을참지못ᄒᆞ여슌우라황아의불호지병을도
조시끼ᄒᆡ되ᄒᆡ시아나가ᄒᆡ머ᄒᆡ의입엇더냥복을
뎨후게녑으시끼줄로옹ᄃᆞ왈책쇠졈ᄀᆞ옵ᄒᆡ오야
복방낭ᄀᆞ은자ᄎᆡ츠마로호셔를다시ᄉᆞ청외옷술
백ᄉᆞ뎌황후러입으시기울져흑줄너가궁인이며

모든즁인이낭쳔을벗드려남복을다착ᄒᆞᆫ실ᄒᆞ우
셜낭노쥐낭쳔베스션장속을입은쳔낭이가즁인
다려일너왈ᄲᆞᆯ니낭쳔을보셔앙ᄎᆞ뒤ᄒᆞᆫ호ᄃᆞᆯ신
ᄒᆞᆯ시게ᄒᆞ라ᄆᆞᆫ일쥬지아니ᄒᆞ면ᄆᆞᆫ날ᄂᆞᆫ이잇슬가ᄒᆞᆫ
낭이다ᄒᆞᆯᄃᆞ디여슈건으로얼굴을가리고눈을닷
쳐라즁ᄂᆡ즁인들이울며압곤뒤로ᄒᆞ로뫼ᄒᆞᆯ다ᄒᆡᆼ
즁시나와호병이봉을션죄ᄒᆞ도ᄅᆞᆯ입ᄒᆞᆫ여ᄃᆞᆯ내고을
러ᄒᆞᆯ셜낭이호령ᄒᆞᆯ거아보ᄃᆡ이져낭이나너ᄒᆞᆫ엿
지감히이갓죄무례ᄒᆞ되호ᄒᆞᆯ광이ᄂᆞᆫ회려구되곳
타여낭ᄋᆞ을회죄지아닐너시니다ᄒᆞᆫ이슈레의올으
소켜즁ᄂᆡ죄ᄂᆞᆫ슈례을갓다셜낭노쥬을당빠ᄒᆞᆫ
여보라가이잇쇄황장착ᄇᆞᆯ날이횡쳥을ᄒᆞ암ᄇᆞᆯ
즁ᄂᆞᆫ뒤ᄒᆞ즁인을ᄎᆞ고이가신곳지어ᄃᆡ남지라

ᄉᆞ변을보랏더니쇼변이일낭ᄒᆞ거의쉰낭ᄂᆞ
죽을감아ᄃᆞ려현ᄂᆞᆫ내ᄎᆡᆨ발날이되ᄒᆡ이ᄒᆞ여곰
좋의불보삼아두라ᄒᆞᆫ디쉰낭이쇼청ᄒᆞ며왈ᄉᆞ슈되
빗ᄉᆞ여셩이죽을ᄌᆞ조얻더니이제아ᄐᆡ울위ᄒᆞ련ᄃᆞᆫ
ᄒᆞᆫ이ᄶᆞᆯ지자여ᄒᆞᆫ은업스나ᄒᆞᆫ련봄을오샹텬
을대신을여오ᄃᆡ잇지못ᄒᆞᆯ지라ᄒᆞᆫ번웃기ᄂᆞᆫ슌셩
을ᄶᆞᆯ허되라ᄒᆡᄂᆞᆫ죽시슉ᄎᆔ를열ᄂᆞᆫ그ᄭᅦ쇼ᄒᆡ를
여왈무지ᄒᆞᆫ오ᄒᆞᆯ리ᄒᆞ날의ᄎᆡᆸᄒᆞ시ᄆᆞᆯ보도ᄂᆞᆫ도
다우ᄃᆡ허ᄒᆞ낭ᄂᆞᆫ당ᄒᆞᆫ만슝ᄎᆞᆫ은보ᄒᆞ시랑ᄋᆞᆺ셰
너의죽좋의잠ᄒᆡ오셜너이시되보나ᄂᆞᆫ헤ᄒᆞ시ᄀᆞᆫ시
인가시ᄒᆡ내죽어ᄂᆞᆫ재ᄒᆞᆯ거드ᄂᆞᆫ쌜ᄂᆞ죽이라드리ᄒᆞᆫ
버아ᄒᆞ로ᄌᆞ술은죽을얼ᄂᆞᆫ디ᄒᆞᄂᆞᆫ디죽이되ᄂᆞᆫ너ᄎᆡᆨ바
날이일너ᄋᆞᆯ죽거ᄂᆞᆫ여의거방이라ᄂᆞᆫ더ᄒᆞ면

혀도다이는죵의잇슴대즈다이의주죵의명을여쭈
전궁평하대화한시의귀하일힝이화을변한시
나농의소생을불나잇저못좋사는물을나퍼사
궁인들로울내빵ᄂ이도미방좋시긔나일위주이밀
울빠아엄실을나향져하갓도여갓되나큰
은는백원의호수행이진종을여백일이누향이화
해호양편큰서를시내가주인다저일은소리가이괴
과홍이엄소내회는황후를보하맞비키한도날
을근련좋하을나줄시며어하의선퍼뵈펄운뢰졸신뢰
근시홀베못도퍼이날퇴펄홀모흔더나홀벌진종
이화여지내일리소변장서쌍칭을빗저부인지
관첫쳐좌우충홀하나이엿령광설근쉰시의앙
궁이야근울남으로보내ᄒ홀가노와갓되이울

북향장을 비치어 일월이 나가 있더니 불의 호병
이 범궐을 에워 황태후와 천자를 시다를 내쳐 애탄 실
리 연옥체 해ᄅᆞ 생각ᄒᆞ되 황상이 천ᄂᆞ 하상의 계시
ᄅᆞ 책쇠와 옥을 급히 ᄒᆞ여 어이지 신하 되어 적임엽다 들여 가안
이 어이시 뫼올 동궁 병을 모아 한번 쫓기를 무릅써
천은을 보답ᄒᆞᆯ 리 좌ᄒᆞᆯ 줄 여울은 라의 눈ᄒᆞᆯ 셰울 궁이
발굴 닌동 주ᄅᆞᆯ 내몰거ᄅᆞᆯ 천ᄌᆞᆯ 여 일빈ᄒᆡ 아호
책비ᄒᆞ ᄒᆞ흐ᄅᆞᆺ이 울셩 각ᄒᆞ니 시각이 급ᄒᆞ여 맛비 동구
병을 모ᄒᆞ되 좌이의 두 짐퇴도와 통ᄒᆞᆫ 병을 모ᄒᆞ
네오 ᄅᆞ록 벽변이 파 일거 연 ᄒᆞ아 ᄎᆞ울 불 나이 일을
의운ᄅᆞ 남인이 운 병ᄒᆞ ᄅᆞ 천일 임ᄒᆞᆫ 펠 ᄒᆞ비 질궁
시울 광속 천훗 황생을 ᄒᆞᆼ ᄒᆞ여 전발ᄒᆞᆯ 셔다 만난
철가 신긋ᄅᆞᆯ 등나 ᄒᆞ로 ᄒᆞ ᄂᆞᆫ 남깃을 바라보서 ᄒᆞ

병이ᄒᆡ을지어로왕이잔즁을나ᄌᆞ라바라보니오르락
리즁ᄂᆡ셜기여ᄎᆞᆼ당을로롭어거ᄂᆞᆫᄉᆞ야ᄎᆞ일지영
이급히쌍창을두ᄅᆞᄂᆡ총강으로듯ᄒᆞᄃᆡ가니로
장에이ᄆᆞ와ᄃᆡ젹ᄒᆞᆫ호향의당치못ᄒᆞ여도망ᄒᆞ거ᄂᆞᆯ연
낭이ᄯᆞᆯ와오며살길을열니셔ᄒᆡᄂᆡ일을ᄒᆡ거가
ᄂᆞᆫ수변장군은통죽을로으며터거ᄂᆞᆫ활ᄒᆡᄒᆞ낭
펄어거쳐셩어국ᄒᆡᄒᆞᆯ거ᄂᆞᆯ낭이비로소빨울
돌ᄂᆡ일ᄎᆡ이ᄆᆞ펄어복지ᄒᆞ여운기ᄒᆡ회마야으로겸
평ᄒᆡᄉᆞᆫ무ᄅᆞ시ᄂᆡ명등은졍병이무어시다욜각
모복왈신등은편낭각노옹ᄒᆞᆫ본이오ᄌᆡ노신은
양광국의ᄇᆡ이르홍이다신등이불홍을와낭결
이옥을보시어이ᄃᆡ션의ᄌᆡ판ᄎᆞᆨ어보로ᄃᆡᄅᆞᄂᆞ
비다ᄒᆡ회ᄒᆞᆫ식줄ᄉᆞ왈이ᄂᆞᆫ다노신의ᄇᆞ다

들어 죽음이 불행하야 경룡의 죄 심한
홍이 짐의 곤난을 수하여 죽게하여 죄 정룡을 보내
엇지 참혹치 안으리오 이난 정룡이 조정의 업ᄃ 간신
이옹권 현연이라 체내 혜상의 가신 황상이 부을
날갈이 업스니 엇지 방조치 아니되오리오 고년장 수
난 엇더한져 건귀네 온 호병을 물니치고 낭군이 죽
왈 이즉 낭게 이나오라 창주이 날만 경별시의 다려온
로 조충의 딸일지면 이라 그려 조젼이 허ᄆ로 조죄로
을 알게하야 죄야 두어더니 이번 충군 출ᄂ 이라 더하거
독이 여기ᄉ 인변을 ᄂ고 손을 잡으시ᄃ 보시ᄋ져 ᄋ국지
ᄉ이라 ᄉ 당을 ᄉ 갓가이 두시ᄃ 엘시도 하ᄋ 지ᄆ ᄋ게
ᄃ시려 ᄒ을 각ᄒᄆ ᄋ 호병이 못ᄃ 젼ᄉ 온ᄂ 밧
계실 ᄀ줄 오옴기시 ᄆ을 가 ᄉᄋ ᄋ따ᄃ 회ᄀ이

소대장은이상의ᄒᆡ여안심치ᄒᆡ을평ᄒᆞ파옥공
이측발로병이동부편의길을ᄎᆞ즐다흠오여진남
형으로가서비가ᄒᆞᆯ가굴낭이다ᄒᆡ회의영을ᄉᆞ진낭
청으로가실서황청서숙백나오산상의성ᄒᆡᆼ이
결ᄒᆞ여숙성ᄒᆞᆯᄉᆞ지ᄐᆞ솔아ᄒᆞ로셀본을삼ᄒᆞ리
옥낭천비빈이거장을ᄎᆞ파지못발ᄐᆞᄅᆞ일지연ᄒᆡ
시위ᄒᆞᆫ여홍군이되ᄂᆞᆫ궁이옥대되여진남성의로
순군거울옥습ᄒᆡᄂᆞᆫ군읍의측군줄나옥좌을천병어
하옵궁을비줄여상군체독을ᄒᆡ이상낭궁으로복
독을ᄒᆡ이서ᄂᆞᆫ일재연으로묘리장군검제상종종
낭징을비ᄒᆡ시ᄂᆞᆫ순아차로천봉을ᄒᆡ이상여ᄅᆞ게
순현봉이삼군을로편ᄒᆡ여불우거변을비ᄂᆞ화
이ᄯᅥ평리노궁을보니시ᄂᆞᆫ항궁의계오순을ᄂᆞ

불낙ᄒᆞᆯ신 환시을다리시ᄅᆞᆯ산의볼으ᄉᆞ회신
을급어보시니뒤헌양ᄒᆞᆯ여그가을보지못ᄒᆞᆯ근뎌
의셔흠여야어의홀난이바야올듸ᄌᆡᄃᆞ또올운
ᄌᆞ겨물거올리물빈ᄋᆞᆯ이반중의날나여안리와
뎌옥ᄉᆡ위리는듯ᄒᆞᆯ러니일홀홍일이셔현의벗긴뒤
히홍의빗쳐나난뒤영ᄒᆞᆫ누가이ᄎᆡᆨ상의어ᄅᆞᆯ여보
취연ᄂᆞᆯ을ᄅᆞ쇠과어ᄃᆡ여쳔빗가저ᄌᆞ별ᄅᆞᆯ나이ᄅᆞᆫ현
중그림ᄌᆞᆫ홍일의벗회미화ᄆᆞᆫ두일랑이ᄒᆞᆷᄌᆞᆯ
벽ᄒᆞ풍낭의도모지가ᄒᆞ야웅시좌ᄒᆞᆫ당방ᄒᆞ뒤ᄒᆞᆫ의한숙
동녹필ᄒᆞ야ᄅᆞᆷ이ᄎᆔ상이의아ᄒᆞᆯ스ᄅᆞᆫ시라ᄒᆞ여보ᄅᆞ시더
뒤ᄅᆞᆯᄒᆞ뒤ᄒᆞ시상셜누그림ᄌᆞᆼ나이라상이부연낭ᄌᆞ의ᄒᆞᆫ
졸ᄉᆞ왈인ᄉᆡᆼ빅년의쳡연가지련ᄋᆞᆼ이ᄃᆞ시져신ᄂᆞᆫ와
일변이파ᄋᆞᆺ과황(당)ᄎᆞ아리오짐이변ᄉᆞ과심이방ᄉᆞ

의오연을신쳥ᄒᆞ다이곳의일은니바람을잡고ᄀᆞᆷ
ᄒᆞᆫ을봇ᄒᆞᆷ이엿과ᄃᆞ리오만일연왕의말을살
ᄀᆞ로졍의잇셧실진ᄃᆡ이지경을이ᄅᆞ되엿시리로다
ᄒᆞᆫ순간졀이연왕의직간을ᄉᆡᆼ각ᄒᆞᆫ순남쳔을바라
보시며로졍ᄒᆞ시더니문득연남다이포난리소년이
ᄎᆞᆯ구을쳬ᄒᆞᆫ말을내오니ᄎᆞᄒᆞᆫ인양오ᄒᆞᆫ봉을셔
복홍스진왕발병　회여삼노촌토ᄒᆞᆫ
죄ᄒᆞ시연왕이적소의온ᄌᆞᆨ쳔이만나의ᄉᆞᆫ진ᄉᆞᆫ근지
회간졀ᄒᆞ니그국ᄒᆞᆫ방의장복융심이나참기어듸
운룡졀을쉬지로밧더니날마다북쳔을흠바라
ᄒᆞᆫ연의지니고러지물셧ᄃᆞᆺ지못ᄒᆞᆫ데이황셩소식을
롯길쥐쳔지ᄒᆞᆫ신의계시다ᄒᆞᆫ니연실셕ᄒᆞᆫ여
셔안을쳐왈노적의간신ᄒᆞᆫ불근심ᄒᆞᆫ엿

시아셜샹의병찰ᄒᆞ시므로이재경의씨ᄉᆞ즈를
즐은엇지알나오ᄒᆡ여양ᄒᆞᆫ타ᄂᆞᆫ식을ᄂᆡ서음을착
지아여복ᄒᆞᆼ호읍ᄒᆡ불ᄭᅡ져아니나셤여ᄭᅡᆼ을여
의로왈ᄒᆞᆫ이되오주쳔봉션ᄒᆞᄂᆞᆫ인즁이ᄲᅡᆫ조소인눅
쾌의능권을다ᄒᆞᆼ자지으ᄆᆡ오날쌩이아여ᄒᆞᆯ이쾌상
증이ᄃᆡ쥐지용ᄂᆡᄒᆡ순지쾌을셩각지아시아이ᄂᆞᆫ
홍복을셩각지아아시ᄂᆡ나온공ᄒᆡ불보로나이다
왕이ᄃᆞᆫ탄왈이안낭의말비아야라엣적의봉션
ᄒᆡ묻그나라의복희궁셔강ᄒᆡ드안으로거강을ᄭᅵ우
드ᄒᆞᆫ벌을벌니현드로비륙국이ᄐᆞᆼ길을나
활놈이ᄌᆡᆨ겨아와긋일로ᄒᆞᆼ을보라거강이보여
지금위게셩아닌ᄃᆞᆫ의게잇지아니면심이날노흥ᄒᆞᆼ
여나라흉원방ᄒᆡᆫ을시ᄌᆡᆨ의활ᄒᆞᆫ저손을뵈옵손
병리현ᄃᆡ되빠지ᄉᆞᆫᄒᆞᆫ즁셩여그빈간의소동ᄒᆞᆫ데서려

흔백이셔울타도셩이빅불란도죽을인옥쳬이나
리오도적이일은족비족쥬져게시나빈빅소인의
불이나좌울도랏보괴이나뫼운좌불버쳔셔바거
계시니퍼오순겨심빈분위ᄒᆞ쥬여증순홍비이한더
뫽솟갓든니취쇄의굴을일굴심체의비구로조홀
울밧긔와심슉쇄의션죽을빈나오올출지각
하탕무지져로어슉지나으로근신상항의스순로쎠
풀뒤흉셩을다혈가골연뎨나출의쳐희편바
군실이빈나의난훈이나화눈훈빙울군실이쉬로쥬헐
길이업스니이엇지상통홰어더리오언재의실셩
비읍훌니난셩이연시함누희더이동호바닥이브르
쥐와불죽회거흘왕이한대바쳑일각년호토졀
의쳔장군통의셩음빈쥴실상변회봇흘엿

뎌여뎌잇다이제찻난대낭연에대왕소장
동이러왕을곳초만나맛져와엇지년뎨가셔엿ᄌᆞᆯ
이ᄉᆞᆫ이남ᄒᆞᆼ산쳔을구경ᄒᆞᆯᄯᅢ토기ᄉᆞ슴을잡아ᄂᆞᆫ
결ᄒᆞᆯᄯᅢ뎌ᄯᅵ왕의ᄒᆞᆼ국혀시기을기다려뎌어근일초졍
소봉을통편의ᄯᅳᆺ슨우니뎐뎨ᄒᆞ시ᄂᆞᆫ의봉션ᄒᆞ시ᄂᆞᆫ
뎨시상의호쥬ᄒᆞᆯ슨편혀올어ᄅᆞ시ᄂᆞᆫ신션을구ᄒᆞ신
따ᄅᆞᆯ오ᄂᆞᆫ의봉션ᄒᆞ신ᄃᆡ두ᄉᆞᆫ쳔하ᄅᆞᆯ시ᄂᆞᆫ병이라
구ᄒᆞᆫ방에상ᄌᆞᆼ이회ᄒᆞᆫ혀실커회잇실가옵시ᄅᆞᆯ
ᄒᆞᆷ이다열왕이ᄐᆞᆫ엘광ᄒᆞᆼ이ᄂᆞᆫ곳의ᄒᆞᆼ어도라가셔
봇ᄒᆞᆯ나ᄒᆞᆼ가의여러ᄒᆞᆫ일을[illegible]라재앙옥ᄂᆞᆫ우리져ᄋᆡ상의
일월지명으로잠간복을에가리시라ᄒᆞᆫ안되고
ᄒᆞ엿어잇서이제ᄂᆞ져병이이엇다ᄒᆞᆯ예복ᄂᆞᆫ되이셔ᄂᆡ
셤순을은ᄒᆞᆫ뎌되오ᄒᆞᆼ주을다ᄒᆞᆯ되어장ᄒᆞᆫ등은나
새ᄃᆞᆯ으ᄅᆞᆯ가[illegible]

왈삼가가라ᄒᆞ신지초병을 받ᄌᆞ올나이다 왕이고
의일장상소을지어 ᄎᆞᆫ이 봉ᄒᆞ여 남장을 주며 당
부왈 주가지ᄂᆞᆫ라 셩부상가ᄅᆞ 추형을 여오ᄅᆞ게
궐말나 낭인ᄉᆡ이 ᄒᆞ지ᄂᆞᆫ 발을 달녀 가며 타이 ᄒᆡ상이
신ᄉᆞ을 보시ᄃᆡ 차ᄒᆞᆫ 줄ᄉᆡ야 가난 인의 흉ᄇᆡᆼ이 ᄃᆞᆫ내
오믈보시다가 편편강ᄉᆞ로 ᄋᆞᆯ나오다 줄시나 강셔에
병을 밧ᄌᆞ와 바로가며 크게 외여 왈 ᄎᆡ거오ᄂᆞᆫ 준ᄇᆡᆨ
ᄇᆡ셩병을 알외라 흉ᄇᆡᆼ인이 점작ᄒᆞᆯ바ᄂᆞᆫ여셔
로ᄆᆞᆫ나 강셔에 왕주변이 되ᄆᆡ로 변기여 쳔져아
파오라 션여명을 편줄며 왈이ᄎᆡ낭 위장군이 여래
로가시ᄂᆞᆫ 길이여 가낭연에 연왕 적조의 ᄉᆡ왕의로
불을 밧ᄌᆞ러 오ᄂᆞᆫ ᄇᆡ을 ᄃᆞ려 강일은 ᄒᆞᆫ편의ᄃᆞᆫ
기을져ᄌᆞᆨ줄 너강셔ᄌᆞᆫ 물색져 왈 션상이 소인의
쥼여울ᄃᆞ로 ᄉᆞ주리 외ᄒᆡ줄 비고 석의 엇더냐

녕황졀하 샹ᄉᆞ일으니라 ᄒᆞ여 홍ᄒᆡ되로다 ᄒᆞᆯ
ᄅᆞ즁ᄒᆞ게 뵹쳔이 알외여 샹에ᄂᆞ로서 ᄂᆞ졔ᄒᆞ여 ᄒᆞ사 ᄇᆞᆺ
비인견줄 셩낭장이 현ᄌᆞ리복 재줄여 샹으로 울ᄇᆡᆺ
ᄎᆡ샹이 진이아ᄃᆞᆫ ᄌᆞᆫ진이 보시어 ᄒᆡ이
울남되숙 션낭쥥국복지쥴와ᄂᆞ ᄒᆡ나여 신이 불훙
목샹데와 량방현이ᄇᆞᆫ 삼으로 현외을 보ᄃᆞᆫ ᄃᆞᆫ알외옥
그졔을 의논ᄒᆞ면 만번 죽으나 숙지못ᄒᆞ올지라 쳥
을이 황대ᄒᆞ소 우직ᄒᆞ믈 용셔ᄒᆞ오소셔 일을 가지보
졀ᄉᆞ온이ᄂᆞ로 보ᄋᆞᆯ 바울 아지못ᄒᆞᆯᄂᆡ이다 신은 일죽 ᄌᆞ촌
오니ᄂᆞᆫ 셜복은 ᄂᆞᆫ오ᄅᆞᆯ의 웃듬이라 셩육지은라 셩
셩지ᄒᆡ 이일 ᄒᆡ오니 그ᄂᆞᆫ 시덜ᄒᆡ 복모의게 업ᄒᆡ울
ᄇᆡᆺ으와 ᄂᆞᆫ의 ᄇᆡ지 말나 숙지ᄌᆞ나 ᄆᆞᆫ일 비부뵈 곱ᄒᆡᆫᄒᆡᆫ
울당ᄒᆡ면 그ᄂᆞᆫ 숙이 엇지 가ᄆᆞᆫ이 잇셔 숙치이나 ᄒᆡ이ᄉᆞᆫ

상이ᄂᆞ뢰래상쳡과를두쳐ᄒᆞᆫ뎨로주신소혜를며승
지아비변이ᄂᆞᆫ부모의념혹을아홀이ᄌᆞᆺ드로곱ᄒᆞ옵
양연랄시ᄒᆞ여매파이엿지관지을너ᄂᆞᆫ발비ᄲᅧᆫ이
재심을신ᄂᆞᆫ의초미ᄂᆞ헐비ᄒᆞᄉᆞ가신이쳔은을입ᄉᆞ와
일ᄂᆞᆨ을보혓ᄂᆞᆫᄃᆞ욘어지ᄀᆞ이어ᄒᆞᄅᆞ오ᄅᆞ패소ᄂᆞᆫ을ᄃᆞᆺ
숑권대고ᄯᅩ통모를이혼연ᄒᆞᆯ로심담이쳐ᄒᆞᆯ현만ᄂᆞᆫ
폐하동으로ᄎᆞᆺ쳐ᄒᆞ셔이ᄒᆡ지어쳔가의향ᄒᆞᆫ협
다봉셩의부실ᄒᆞ본결을최ᄆᆞᆺ츨거어본ᄉᆞ흑
흉여한복해의졸ᄒᆡ한비을폐하의얼은엇ᄌᆞ저
병으로헛렷지ᄆᆞᆺ츨시ᄉᆞ퇴어ᄃᆞ라만ᄉᆞ목쳔시곰ᄒᆞᆫ연
내와ᄋᆞ홍수혀ᄂᆞᆫ거ᄂᆞᆫ죽실이웅ᄒᆡ간물승시즁여작
난이셩길ᄂᆞᆫ가ᄂᆞᆫ섭이ᄋᆞᆫ이뒤범ᄆᆞᆺ가ᄋᆞ의부지ᄒᆞᄋᆞᆫ바
예셥라저가ᄋᆞ이잇시비애ᄒᆞᆯ근뎌ᄂᆞᆫ이ᄂᆞᆫ어겨가ᄋᆞ이

몰여지ᄅ법구ᄒᆡ며상을ᄂᆡ쳐강슉말은ᄒᆞ여ᄂᆞᆫ
상이호박츌ᄂᆡᄒᆡᄒᆡ비록여평도치홀오ᄅ로슉즐
시며ᄇᆞᆫ빈을ᄇᆞᆨ바울시여오미ᄒᆞ야화상을강즐거ᄂᆞᆫ
울발ᄒᆡᄅ키을기우며거퇴을여ᄉᆞᆺ블지어ᄒᆡ불ᄂᆡᄒᆡᄒᆞᆼ
재슌을인연ᄒᆞ슌국ᄋᆞᆫ을당갈ᄒᆞᄅ빈왼을일ᄒᆡ퍼
잠ᄃᆞᆫ도퇴을쎄오미퇴잇바며ᄒᆞᆼ츄ᄉᆞᆼ이라도겁을젼
이ᄅᆞ슌츈져ᄀᆞ대ᄂᆞᆫ여블길지슌의졍을바라ᄅ방탕오
우ᄒᆡ여도리뫼피안넌죽고ᄒᆞᆫ쳡은원방ᄒᆞᄅ비복
온ᄒᆡᄒᆡ죵여가죵이무병ᄒᆞᄅ슈ᄐᆞᆫ쥴며왕ᄅ이작변
이야몰변ᄒᆡ봉쥴가여이ᄒᆡᄒᆡ쥴ᄇᆞᆼ숑과ᄎᆞ며슌ᄒᆡ직
ᄇᆡᆨ을누퇴오슌일죵일ᄒᆞᆼ의조죵며ᄒᆡ시여여ᄉᆞᆺ려ᄒᆞᆫ시
퇴잇ᄅ일조의슉리로ᄑᆞᆫᄒᆞᆫ방숑을비승으슌ᄒᆞᆫ며ᄒᆡ
상의ᄒᆡᆼᄂᆞᆫᄒᆡᆼ이건도ᄑᆞᆫ우시ᄆᆞᆯ이ᄉᆞ시나ᄇᆞᆫ록부삼이로

훈로파도영결이ᄒᆞ여축ᄒᆞ여벽로ᄅᆞᆯ리로ᄒᆞ보ᄅᆞᆯ버ᄒᆞ니
심을두ᄂᆞᆫ엿보니되엿ᄂᆞᆫ상뒤이허ᄅᆞᆯ통원이연ᄂᆞᆫ근심은
낭반북젹이화 방금도현이남경라랄나북방의갓
가오나일뒤장형이ᄶᅩᆨᄒᆞᆫ엿서오오롱영명으로검자의
ᄅᆞ도잇시믈신이게양ᄂᆞᆫ섬허ᄂᆞᆫ벼회가평신의말솜
이라ᄒᆞ여평연ᄒᆞ니엇신ᄌᆞ국이국가의다ᄒᆞᆼ현연의
오고러죄이연ᄌᆞ국근근심이조젹의엇시믈ᄒᆞᄂᆞᆫ심ᄒᆞ압
ᄂᆞᆫ비ᄒᆞ복원ᄒᆞ계ᄒᆞ준오지의칠층미을둘나스총보
사적여위귀ᄒᆞ미법게ᄒᆞ여초쳐군신이남북의조젹ᄒᆞ
와양위흉망의질을갓되인젼시상신의금일미하
현젹지죄상쳠되믈복률ᄒᆡ불충된바이믈엇
당줄지ᄂᆞᆫ나어라준엿며파잇싸
상이헐장을보시ᄂᆞᆫ어축호용안을죄순갈아사

귀집이 불병ᄒᆞ여 이 가ᄉᆞᄒᆞᆫ가 ᄒᆞᆫ지 셔울방
츅ᄒᆞ로에 경계을 당ᄒᆞᆯ 나이 업고 나라을 보젼ᄒᆞᆯ리
요언ᄂ이 그계강을 칭찬ᄒᆞ시ᄂᆞᆫ 남평을 갓가이나이다
오화ᄅᆞᆯ 수복ᄒᆞ시ᄆᆡ 대홍이 엇지ᄋᆞᆫ남 ᄇᆞᆯ이의 연왕의
츙혁을 ᄒᆡᆺᄌᆞ 난ᄒᆞ난 연이다 홍왈 신홍이 폐하의 령
을바다 연왕의 셩ᄀ 츅ᄒᆡ 경ᄌᆞᆼᄒᆞᆯ이 연왕ᄃᆡ비
슈배ᄒᆞ고 환난의 강을 갓ᄀᆞ 패ᄒᆞ니 이어ᄃᆡ셩
녀그신의 울이을 가ᄅᆞ시다시 ᄒᆞ교ᄒᆞ 신왈 연왕의 ᄎᆡᆨ
심담연홍라 졍ᄒᆞᆫ 대랑은 와룡의 거ᄂᆞ로다 졍이
륙왕ᄂᆞᆫ 울츅ᄒᆞ회ᄒᆞ나 빗ᄎᆞᆯ이오지 ᄒᆞᆷ호병이지ᄒᆡ의
일은ᄋᆞ고 노ᄒᆞᆯ이 승ᄒᆞ을 알길이 업스니 평룡으로 각
ᄃᆞᆫ본적을 츅낭이 ᄀᆞᆺ의이ᄇᆞ 군시게ᄒᆞᆫ 밧비 운남
보내여 연왕을 수ᄒᆞ여ᄂ명ᄒᆞ 계ᄅᆞᆯ 파ᄒᆞᆫ시다 사복ᄒᆞ

시디홍동ᄒᆞᆫ탈이지ᄒᆞᆷ대되이냥조ᄒᆞᆯ시니냥고ᄌᆞᆼ이디혹
허ᄃᆡ홍탈이가보믈ᄉᆞ화가ᄒᆞᆯ변복ᄒᆞ고음븜에잇
나이다상이차탄ᄒᆞ시고갈ᄋᆞ샤ᄃᆡ홍ᄒᆞᆫ탈이황ᄒᆞ엿
난가ᄅᆞᆯ엇ᄃᆡ이이졔온남의다ᄒᆞ니도젹이더욱ᄒᆡ혹
ᄒᆞᆫ도다ᄒᆞ시고친필노연왕의조셔ᄒᆞ샤셔ᄂᆡ리실
경의글을보니짐이낫지더욱ᄀᆞᆺ겹도다ᄌᆞᆫ빅을
은평의리혜홍셩을벗ᄒᆞ이다짐은아둑블녕을
여아지못ᄒᆞᄂᆞᆫᄌᆡ바ᄃᆡ이심ᄒᆞ다왕은쥭회ᄒᆞ나
깃드러오자ᄒᆞ라ᄌᆞᆨ병이ᄃᆡ간ᄒᆞ여표빙ᄃᆡ회
의도ᄐᆡ와갈길이박ᄒᆡ며경의ᄉᆞᆫ젼지병을더욱
향ᄇᆡᆨᄒᆞᆫ나ᄇᆡᆺ베홍ᄒᆞ탈다비도ᄒᆞ여짐을ᄌᆞ
ᄅᆞᆯ여ᄀᆞᆫ실ᄉᆡ이빈기이상ᄇᆡᆫᄒᆞᆯ가바라노라ᄒᆞ엿더라
이와우렴ᄒᆞᆫ손의빌갈타ᄂᆞᆫ것을극ᄒᆡᄒᆞ여

죽아ᄅᆞᆯ가라져죽ᄅᆞᆯ시다ᄒᆞᆫ시노ᄅᆞᆷ이되고울거
나려산동생을힝ᄒᆞ여현ᄒᆞᆫ셔일지랑ᄒᆞᆫ흥의ᄒᆞᆼ
셜게복디뎌과ᄃᆡ어거지니노ᄅᆞᆷ이ᄃᆡ병ᄒᆞ여ᄃᆡ평
길인다려길흉을복ᄒᆞ니진인이침음양구의왈
황신거ᄂᆞᆫ즁앙을응ᄒᆞ엿시ᄃᆡ홍양은ᄇᆡᆼ음이어고
뒤복상을ᄒᆞᆫ생각이잇시니볼리ᄎᆡ쇄거ᄑᆡᄇᆞᆫᄂᆞᆯ이
되네ᄎᆞᆯ평이두ᄇᆡ나울을ᄂᆡ기고아나괴굴이ᄒᆡᆼ길여
ᄇᆡᆫ여도섯거의복당ᄒᆞ더라상동병ᄒᆞᆫ의관ᄒᆡᄂᆞᆫ퍽진
의보ᄅᆞᆫ나아울ᄅᆞᆫ션의생홍의ᄃᆞ려주변이ᄅᆞᆫ불보
ᄃᆞᆫ진상의울수호병을리ᄒᆞᆷ여뒤편실여ᄒᆞᆫ의노
굴의근셔엿지호뫽을책당ᄒᆞ되오뒤ᄒᆡᆫ이러ᄒᆡ
불보ᄂᆞᆫ급히진연을염ᄒᆞᆫᄂᆡ작ᄇᆡᆼᄅᆞᆯᄂᆡ급ᄒᆞᆫᄇᆡ

와오관바람이 ᄇᆡᆨ시쟉이 날ᄂᆡᄂᆞᆫ 신쟝귀졸이 호권을
ᄉᆞ변으로 에워싸며 쳔위귀경ᄒᆞ여 조ᄉᆞᆯ을 겨누어
셩의들고 급히 황셩ᄎᆔ라 간장쵹쳑 발ᄂᆞᆯ을
부로 나쳑 발ᄂᆞᆯ이 장쵹로 황셩을 재ᄒᆡ오ᄃᆡ
신동쟝의 일으되 션우의 ᄎᆔ현슈졀을 도ᄅᆞ ᄲᆞᆯ이
반다시 병괴의로 술잇ᄂᆞᆫ져 잇셔도으미라 함으로 잣
ᄒᆡ기여져 오니 한 졔교잇셔 노ᄌᆞᆫ을 ᄒᆡ여 안뎌ᄒᆞᆼ복
ᄒᆡ게 ᄒᆡ되 이ᄃᆡ 이의 황쳥의 쳐 노ᄅᆞᆫ의 채ᄌᆞᆫ을 잡아
ᄌᆞ룡의ᄅᆞᆯ 일러이 졔 그쳐ᄌᆞᆫ을 가져이 ᄒᆡ 조달게ᄂᆞᆫ
쥭노ᄌᆞᆯ은 분시 소인이라 ᄲᆞᆫ다시 황복ᄒᆡ되 이ᄃᆡ 셜
위ᄃᆡᄒᆡᄒᆡ여 주쥭시 황쳥의 쳐강을 ᄉᆞᆫ경리신의가
쳔을 신동으로 다ᄅᆡ을 셔쳔시의 관왕화진이 본
국의 이ᄯᆡ 호병이 범궐ᄒᆡ 물ᄅᆞᆫ듸 평ᄌᆞ

여공죽을뒤혀여탄왈간신노롯ᄒᆡ나라을고

롯ᄎᆡ이ᄶᅬ쳘쳐쳔나밧지계셔ᄂᆞᆫ미구쳔위도셩을

겁박ᄒᆞ여ᄐᆡ후안쳔가신조ᄅᆞᆯ모ᄅᆞ라ᄒᆞᆯ나신ᄂᆞᆫ고

셤이안ᄒᆞᆫᄒᆞᆯ되오화쥡이붙국운순을미나ᄅᆡ양쳔을

보ᄒᆞ고ᄌᆡᄒᆞ니공죽은기리보ᄒᆞᆯ줄여도리오기울퍼다

픠ᄉᆞᆷ계공귀발굴너통국왈모회ᄒᆞ쳥와이갓ᄒᆞᆫ욕

울보시너욕황쳔이다지부심ᄒᆞᆯ시ᄂᆞᆫ쳥이비루이나

쥐야치야잇지안쳐쳥이잇실잇ᄂᆞᆫ뒤왕을좃칠ᄉᆞ올

갓쾌ᄒᆞᆯ가ᄒᆞᆯ낭ᄃᆡ왕이위조왈공죽은ᄃᆞᆫ심ᄒᆞᆯ소셔ᄒᆞᆫ

이혐을다ᄒᆞᆯ여후일되로되ᄒᆞ미낫지게ᄒᆞ되부연ᄒᆞᆫ

리호송의이우되게ᄒᆞᆯ으소셔ᄒᆞᆫ쾌ᄂᆞᆫ거칠쳔병을조

발ᄒᆞᆯ여ᄒᆡᆼ안비도ᄒᆞᆯ여오던이길의셔일뒤호병이부국

현거장을물아가거ᄂᆞᆯ홍국니셔광ᄒᆡ가ᄂᆞᆯ보ᄂᆞᆫ군ᄉᆞ

을노아가는길을막ᄃᆞ우교화ᄒᆞ여ᄭᅳᆫ니미와보미고홍
숙ᄃᆡ니젹본병흥장으로숙쥐몸을열ᄂᆞᆫ효과라ᄒᆞ
ᄂᆡ이문당ᄒᆡᄂᆡ난ᄲᅡᆫᄒᆡ거늘왕이보ᄃᆞᆫᄒᆡ연되왈ᄃᆡ
갓흔뎨자울주ᄒᆡᄂᆡ계그양ᄒᆞ와ᄒᆡ다ᄂᆡ거장본닷되ᄃᆡ
호읍ᄒᆡᄂᆞᆫ숙젹거장을큘쥐되여모과오며왕이
거장의돌여ᄀᆞ의ᄀᆞ본을부ᄅᆞ니그ᄒᆞᆼ낭리ᄯᅥ져북셕
이ᄉᆞᆫ네의모양이여ᄒᆞᆯ복ᄒᆞᆯ쥐쳔양이ᄃᆡ왈ᄎᆡᆼ은ᄒᆡ
ᄒᆞᆨᄒᆞᆼ시ᄂᆞᆫ영가시오쾨과ᄒᆞᆫ은ᄎᆡᆼ의비ᄂᆞᆫᄂᆡ아ᄒᆞ재
술왕여술나낭쳥가션ᄭᅩᆺ즐못왈안ᄉᆞ가젹관의셔
ᄒᆞ회ᄒᆞ화ᄒᆡᄃᆞᆫᄯᅢᄂᆞᆫᄂᆡᄂᆞᆫ노소쳔이ᄃᆡ왈이ᄂᆞᆫ노ᄌᆞᆷ쳥가
권이라즐ᄃᆡ이ᄃᆡ즐ᄃᆡ과의양이ᄎᆞᆫ낭ᄃᆡᄒᆡ왈ᄂᆡ이졔
비쳥아ᄒᆞᄒᆞᄒᆡ니그ᄃᆡ울숙ᄋᆞ쉬못ᄒᆞᆫ나아지ᄆᆡ본
숙의가궁ᄒᆞ울모시라ᄒᆞ쳥ᄒᆞ도되.가ᄭᅵᄒᆞ

되라 쳥양이 호구을 버셔아 쳔방의와 진왕
을 바나아 쳔의 도으시물 깃거 스례ᄒᆞ고 역시 공도의
갈곳지영 난과라 왕의 지휘ᄃᆡ로 피ᄒᆞ으로 강화
호병이 ᄌᆡ손의셔 빅내 겸탈ᄒᆞᆫ 슉혀울 산둥셩의
빌으되 진왕병 반나낭키 휜스욕을 ᄒᆞ며 ᄃᆡ션외노
쥰의가 솔잇시물 디회ᄒᆞᆫᄃᆡ 쳥샹의 쳬궁 그게웨
여왈 ᄃᆡ병노 독을 향복ᄒᆞ며 가권을 뒤로ᄒᆞ 변살
내리라 ᄒᆞᆫ내노 ᄌᆞ이 쳥상을 바라보고 불으과 명ᄒᆞ
논거동을 되이 보지못ᄒᆞ리 운이ᄒᆞ상 ᄒᆞ나 경을 ᄒᆞ
금을 물니고 진즁의로 ᄃᆡ와 셩과ᄒᆞᆯ 귀셔의 오기는
안희을 ᄒᆞᆫ여 장ᄉᆞᄃᆡ노ᄅᆞᆯ 읧ᄒᆞᆫ 연셔 이제 ᄎᆡ자
쑬우쳔ᄒᆞ매ᄅᆞᆯ 쳔우을 ᄒᆞ대곤을 이ᄅᆞᆫ은 ᄒᆞ연왕
의진씨울 아솔거내 오막이 국쳘나ᄅᆞ키 편ᄒᆞ엿빙무

슉덕이 인이 다 나의 가슐이 파내 엿리 운명을 비쳐
가슉을 쥬희 뵈온 후 여셩각ᄒᆞ여 다시 탄ᄒᆞᆫ대 내 비록
뒤궁을 쇄웟나 황상의 발군시니 왕손을 한번 엇
죄시면 그궁을 가뢰 죄를 슈리 못ᄒᆞ리오 다만 복죄
현뢰 도울 쥭일다 흠이라 외셥이 의미츠 죄를
안색ᄒᆞ여 지쳥치 못ᄒᆞ여 ᄉᆞ몽베 봉강일 워션관
이동현란을 ᄉᆞᆯ은 강ᄉᆞ로을 임은 한손을 오한 둘을 밧
둘은 한 손으로 ᄎᆞᆯ 셩검을 들어 ᄂᆞ리를 치거ᄂᆞᆯ 나셔
뢰여 흥으로 ᄂᆞᆫ 셤이 동의 찻ᄂᆞᆫ 쥭빌이 희 ᄂᆡ 현충 ᄒᆞᆫ 밧
거기 ᄒᆞ품ᄉᆞ 위나 내 운 ᄇᆞᆯ로 외현로 각비 면을 ᄉᆞᆯ의 뮈여
박쇄 일은 이 ᄉᆞᆯ이 편종의 쉬러지기 쳠어도 둑거ᄒᆞ여
나이다 노롬에 반ᄒᆞ 보니 ᄒᆞ엿시대
대현우 편광희 빅발ᄂᆞᆫ 살져 일란 줄 열을

뎌병도독장졀의ᄲᅳᆺ최나여북운르로녀리쾌
인은이쾌두실을발기보버경출흣는ᄌᆞ는양화
을돌녀북울삼나여로독이ᄀᆡ체비극상만리군으
로게야좌황병을받아총국외엄을ᄲᅥ이갈롯줄
나화션셩츅하고복원하오량쳔되어불아는모ᄅᆞᆯ줄르다
도독의ᄲᅡᆯ그시므로어지어울보로뢰요현신을참
소ᄋᆞᆯᄀᆞ조청을ᄅᆞᆨ난현려ᄎᆞ주로빈심을소동는여명
화울일회연겨그ᄀᆞ주로빈일조청의한신이이시면
군복울농나하여거설봉셔하엿시되보이순ᄒᆡ욕
주노ᄋᆞᆯ회하여불권줄여향션이벽이계펀저스근그
현려팡셩의제설닌심이산펀촉우리어빈감
뱡이이사앗지이알조의어갓지모와그물나보일흘고

ᄀ 던지금 일ᄇᆡᆼ화ᄂᆞᆫ 도독의 ᄇᆞ를 ᄇᆡ와 ᄉᆞᄉᆞ로 ᄇᆡᆼ화의 울지
아개ᄃᆞ ᄉᆞᄉᆞ로 ᄇᆡ우으려 ᄒᆞ니 ᄋᆞ울 독다 공ᄂᆞᆫ 비소려ᄃᆞ 빅셩
은원망ᄒᆞ얼지라 도독의 장ᄇᆡ이라 한ᄒᆞ여 뒤승을 쎄
온라ᄒᆞ며 나중이 계흥을 ᄉᆞᆨ자 못ᄒᆞᆯ게셔 오불ᄒᆡᆼᄒᆞ여 한
번쾌ᄒᆞ여 별반ᄃᆡ셔 별쥭지 ᄒᆞᆼ을 번ᄌᆡ 못ᄒᆞ리니 도독
을위ᄒᆞ여 공국이 리탄ᄂᆞᆯ 보라 ᄯᅩ 공쥬 반그 일담이 편
뎨연왕을 쓰신ᄒᆞ 나라이 흥ᄒᆞ여 패ᄒᆞ니 흥인지 심을
ᄒᆞ물도 긋나 명환ᄒᆞ여 어지 선ᄒᆞ지 못ᄒᆞ리오 북이북
방의 상장을 ᄒᆞ여 즁쥭ᄂᆞᆫ 몬울 ᄌᆞ자셔 이르지 못ᄒᆞ엿시
나연왕이 다시 쓰이ᄂᆞᆫ 날은 도독의 북이 아니라 이제
도독이 걸퇴ᄒᆞ고 우의 살과 ᄇᆡᆼ이 어거늘 오ᄒᆞ려 ᄉᆡᆼ각
지 못ᄒᆞ니 나이를 북어ᄃᆞ 단ᄒᆞᄂᆞᆫ 비파 쳑의 ᄒᆞ나라.
네소격은 ᄂᆞᆷ셔 화ᄌᆞ이오 한가ᄒᆡ 신이나 북방

의독항ᄒᆞ여조ᄒᆞᆫ왕이되여ᄇᆡᆨ기을수렷시나
폐강ᄇᆡᆨ여러주세력을도적ᄒᆞ다가별수지화을
안ᄑᆡ기다린오되물내로도ᄉᆞ의병망제국아지별은
ᄒᆡᆼ으로ᄒᆞᆫ번투항ᄒᆞ여한우을롯잘편뒤여지람
지평ᄉᆡᆼ셜에되오다형이힘을갓취헌젼대죵원을
엇는날은디돌배혀굴왕여덜가서오불헌허여낭
허여여도갓지북으로도라가조한왕부지준자서혈
저이쳐지단즉허여평성연탁허여신속이쳐허며
어려허노에순이허울보아촌화위봇이라쇼드드나소
빌일인즉반대보타옥(대)이절족혹회성기양도혁혀
여퇴불노회리발드시호니미목져니타즐엿대파
노울이젼쳥의니퇴울쇽이드련음만흰의대사음을

을보아평신영시죽을ᄲᅢ하보내엿인을와저ᄒᆞ여는
갈ᄅᆞ자는돗ᄎᆞᆯ다가별연이손을들고허쉬연을죄내이되
안졔한ᄯᆞᆯ은안ᄌᆞ가몬즈믈길ᄒᆞ더니ᄭᅩᆺ어목되여엇지시
화북바드녀엿더허ᄅᆡ오이의빗슬쎄여냥쉬을소ᄅᆡ즐
다가뒤황진이니줄과이어ᄒᆞᆫ여엇지면준즁으리온허여라
손난예ᄯᅢᆨ흙을이허너무금쥐오ᄯᆞᆯ은쇠상밧셔여져그쿰
의평숨의배쉬나되오이의건인을보ᄂᆞᆫ완은셜원은금의ᄂᆞᆫ
조화돈오을드ᄅᆞᆯ우시어가절인ᄯᆞᆯ을동오ᄂᆞ구어셔ᄒᆞ고조흠
노금이되여엇너ᄯᆞᆯ
연비ᄂᆞᆫ쳥을소ᄒᆡ 폐이ᄂᆞᆫ놉히날ᄂᆞᆫ쳥은은소리지ᄂᆡ
쳔쟝호쳔쟝호되 ᄒᆞᄂᆞᆯ에장쟉셔ᄯᅥᆨ되리ᄒᆞᄂᆞ다
길인이ᄂᆞᆫ본ᄯᆞᆯ이목삼ᄇᆞᆯ에도노굴이람ᄯᆞᆯ연애ᄂᆞᆫ짜살
은연왕을일은ᄇᆞᆯ리오쳥운을소ᄒᆡᆼ은셜셩을

일은 발이 보쳔광ᄂᆞᆫ 되 말은 ᄒᆞᄂᆞᆯ이 ᄇᆞᆰ앗다 ᄒᆞᆫ 발
이내 대병에 죵ᄒᆞ리라 말이 나라진인이 ᄉᆞᆯᄋᆞᆯ 면도ᄒᆡ
거ᄒᆡᄂᆞᆫ 되구온 주적이 홀왕 홀게 ᄒᆞ여 죽가 ᄒᆞᆫ 방의 갈험
ᄒᆞ지 보노 ᄀᆞᆺ 한 일을 이ᄅᆞᆫ다 나의 죄ᄒᆞ 쳔ᄉᆡᆼ을 ᄆᆞ리다 ᄒᆞ여 ᄒᆡᆼ흘
버노 ᄉᆞᆯ이ᄂᆞᆫ 병ᄒᆞ시 불ᄂᆞᆫ 보ᄂᆞᆫ ᄒᆡ 당에 불을 ᄯᅥ여 홈을
을지어내여 그 ᄭᅩᆺ지 염왕이 ᄎᆞ인 후 쳔셩이 ᄭᅩᆺ기여 가ᄂᆞᆫ 병
나의 ᄒᆞᆫ ᄒᆞ되 ᄒᆞᆫ니 쳔셩은 ᄂᆞ슐ᄒᆡᆼ 상의 거ᄅᆞᆫ 일실
뵈여ᄂᆞᆫ 스나 술흐다가 편ᄒᆞᆫ 노릇의 신세난어 내 ᄀᆞᆺ의 홋
을홀 ᄉᆞᆯ알ᄒᆞᆫ 보 길인이 범ᄒᆞᆫ 소왈 쳥은 의 거ᄒᆡᄂᆞᆫ 네게 ᄃᆞᆯᄭᆞᆺ
시어 ᄯᅥᆺ지 염왕의게 ᄭᅩᆺ기여 가더 ᄂᆞᆫ 노ᄅᆞᆯ 이라 ᄉᆞ숙ᄒᆞ 슌례ᄆᆞᆯ
만ᄉᆡᆼ이 살고 쳔ᄉᆡᆼ을 ᄂᆡ 방ᄒᆞ야 ᄒᆞ니 염왕은 진리 범연ᄒᆞ여
양ᄒᆞ라 상 ᄃᆞᆫ 쳔시ᄒᆞᆫ ᄒᆞ 길ᄅᆞᆯ 제ᄒᆡ ᄒᆞ여 ᄯᅥ ᄎᆞᆺ도 삼나ᄒᆞ다 ᄒᆞ도
공ᄒᆞᆫ 우 ᄉᆞᆫᄂᆞᆫ 조ᄒᆞᆫ 복공ᄒᆞ여 마ᄂᆞᆫ 일 ᄒᆞᆫ ᄉᆡᆼ다 ᄭᅳᆯ은 ᄌᆞᆫ 젼ᄒᆡ고

브지우니 어지러옴 장인이 자연 얼굴 모르고 이 연ᄒᆞ여
이셔 아이를 빈혹하여 왈 네 실 명산 총의 후조하여 편
국을 쥬근하여 참 혼 져로 올 바사고 올 열을 청(고)회
군 멋려여 연왕의 첫재 이갓흔 글 주 한번 결외 보리라
줄 너노흉이 되퇴하여 이의 책 빌 날의 화가을 내여 길
인올 배여 왈 난생이 성어 총국해온 지성여 총국 주은 너엇
지복 보지 국을 바꾸어 충노의 께 절하여 다래오 반는 ᄌᆞ
근로 총국 국 되 막아 하여 다산 당는 다시 미운 축공 숨
인져을 용남과 인어 나의 화고 질화 복환이라 섣인
발숨의 도총 ᄒᆞᆫ신을 발해도 축경을 향해(면) 아 반빅자
이과 출멋서더 광배 괴채 조정을 상은 숨한교 형체는 어 (핀지)
화구인을 비상거 경제로올 나라이 히여 주니 이한 것을 지ᄒᆞ여
라인의 흥제울 벼로 오금일 냐셩의 숫자 입의 정순
멋서여 셜석은 반셩을 쭛亡 다시 북으로 나아가고 비

혼바려초울다굴여팔번챵국의예긔울써거늘드
신죽쳔셩의쥴법이쳔하의쑤쌍해여독보헐샐
아니라쌍셩의비칠한올씨슐가혀나이다쳥운올본뒤
도인이아니오비냥허평두고심이만은셔타피이면왕을
쎡근외못외다여허밧연쥐노츄이뒤화하여쳔빨놀
외계당셔롤여드두향쳘살이을쳔츄책발을이게
화헌여쳔우와상의왈노츄이비상이놉흐나지경에
쳔단츄는다예골뒤졈해이우쳔화편향을보든며
귀운울흡죽게한소셔셩우허탁를니닝셔허며계
내야죽헌드이일삼게의노츄이대견올쳔의외내불으
근심부장죽일인다키쳥진인을다해긴셩헌여일으되
무올근그다해니쳐빨날여모에쇠기해도따가쟈의죵일을
쳔오비뎌과우의조쌩은멸북을엿다가그만제조오보올
근외조놀올는잡여숙요의왈는부즛이잠쳥의디봉을으되

것쳐양 방ᄒᆞ여금 일지 순 필리 과ᄒᆞ 경ᄎᆞ여 ᄒᆞ엿든
시로 통이라 노굴에 난 변이 당ᄒᆞᆫ 뒤 보굴은 병졀ᄒᆞ뒤 보국치
한 시황이 최 장군의 발쓸 듯 권쥐엇지 못ᄉᆞᆯ ᄒᆞᆫ지야
나뢰 오랑 백성을 이로 언으로 엇기로 ᄒᆞᆸ 별 잇고 뒤 션 우뇌
기별은 세 천위 소왕은 노 참쳥은 키에 뇌향 엇지 태ᄒᆞᆫ 이 황
장자혜ᄅᆞᆯ 보뢰보변 촉ᄅᆞᆯ 미ᄒᆞ리 ᄒᆞᆫ 어ᄂᆞᆫ ᄌᆞ부봉왕ᄅᆞᆯ ᄒᆞ며
되ᄒᆞ노 굴에 순여양은 노 굴은 공박 ᄒᆞᆫ 종책으로 인군을 바
반츌 그 ᄯᆡ은 신을 옹ᄒᆞᆸ ᄒᆞᆫ 현이 어ᄒᆞᆸ 셔최현 니두ᄒᆞ 굴니ᄂᆡ
엇지 곰리 ᄎᆡ 아되 엇ᄂᆞᆫ 쳔위 ᄀᆞᄅᆞᄂᆞᆫ ᄂᆞᆫ 녹시과 현왕을 용
ᄒᆡ여고 가 속을 불변 상변 계ᄅᆞᆯ ᄒᆞ 보변을 져ᄒᆞ 여ᄒᆞ면
재을 봉ᄒᆞᆯ 뫼노 굴에 십궁에 부ᄒᆞ여 뮈 황뎨ᄒᆞᆫ 을ᄂᆞᆫ 게
로ᄎᆡ 왕은 ᄃᆡ궁은 쳥은 도셔ᄒᆞ 은 옥ᄅᆞᆯ 책에 노굴ᄅᆞᆯ ᄎᆞᆺ
명왕을 뵈오려 오셧ᄉᆞ니이다 셜우 게 졍왕을 이 엇지 ᄒᆞᆫᄒᆞ여
축로쥬ᄒᆞ여 드ᄂᆞᆫ 이ᄒᆞ은 쳥은 도셔ᄂᆞᆫ 셔ᄅᆞᆯ 조ᄅᆞᆯ ᄯᆞᆫ 후에

옥이의 몸을 빌어 중생을 여의 쾌락의 원을 청생에
도환술 법을 우희 가지도록 한 번 뵈오 불을 원하엿더
니 금석이 하석이 왼디 슈ᄃᆞ어 강남슐생이 이안의
복이로소이다 황온이 심히 염화하여 그 앞을 번ᄒᆞᄂᆞᆫ
옥옥중 착이 평화 연서 다ᄒᆞ니 나 화찬의 수죽은 금이
바람을 석화 복심에 게 그 복섬이 옥중 해 남북의 길다
내 얼은 과라 이재 대왕의 옥병 해서 불잡ᄒᆞ구 경구해
일우이나 이다 최백 본 날 화창을 여얼 흉을 의어도해
중모 부구두 대이 갓박물 니과재 못증평을 게울 손보주귀
정도중니 황온 옥양 존욕주ᄂᆞᆫ 노울의 갓부봉 정게 종니
라노 중이 연우의 계로왕 천조의 허병이 연의의 이시나
밧일슨 손중로러 과게 안년록이 손팩국을ᄂᆞᆫ 퇴하이라
일리 정병을 오봇제 고슨중 평옥 여더ᄂᆞᆫ 군선과 존연ᄒᆞ더
저되여 고되을 여여 봇재 중주 평존 여화ᄂᆞᆫ 궁울 움술ᄒᆞ

안ᄒᆞ로 ᄒᆞᆫ국을 평명ᄒᆞ매 내 엇지 ᄌᆡ개 ᄌᆡ조 부족ᄒᆞᆫ 셩
병을 보지 ᄂᆞᆫ 변에 ᄂᆞᆫ 손 부ᄒᆞᆯ 장 복에 ᄒᆞ노 ᄒᆞᆫ국이 소일 ᄉᆞ장
군의 마ᄋᆞᆷ은 상ᄒᆡ올 뵈 ᄒᆞ리ᄂᆞᆫ 파ᄒᆞ라 그 ᄒᆞᆷ에 부ᄒᆞᆫ ᄂᆞᆫ 내 병블ᄂᆞᆫ
남순ᄒᆞ라 병ᄒᆞᆫ 쳔ᄒᆞᆫ 쥬를 노흥 승와 ᄌᆡ시 오로 ᄃᆡ궁의 보ᄒᆞ라 ᄂᆞᆫ을
흉츈 왕ᄉᆞ아 과ᄒᆞ웁을 낫최고 보ᄒᆞᆯ가 ᄒᆞᆫ 나이다 쉰 ᄋᆞ기ᄅᆞᆯ
울 홋흔 쳔병을 ᄌᆞ발ᄒᆞ여 쉰 복을 통리ᄒᆞ여 일신외
녀ᄒᆞ와 쇠비 병진 ᄒᆡ지ᄋᆞᆼ이 노ᄒᆞᆯ을 일고 흔연 녀지 ᄒᆞᆫ지도
ᄒᆞᆫ라 가호 병이 ᄒᆞᆯ을 기ᄋᆞᆫ ᄒᆞᆫ 쇠나 병진의 쉰각 ᄀᆞ져
쉬쿳ᄋᆞᆼ 금을 비ᄒᆡᄂᆞᆫ 가ᄉᆞ기 ᄒᆞ비ᄋᆞᆼ을 여리ᄃᆞ 날ᄂᆡ 간상 당지ᄒᆞᆫ
재복ᄒᆞ여 쳔위 ᄃᆡ병을 보라ᄒᆞᆫ 궁으로 ᄒᆞᆼᄒᆞ여 쳔ᄂᆞᆫ
을 ᄒᆞᆫᄒᆡ 파ᄒᆞ여 이ᄂᆞᆫ 다노ᄒᆞᆫ의 비져ᄒᆞ 가ᄒᆞ ᄒᆞᆫ ᄒᆞᆫ울이 상
룡을 버서 기로 광쥭 복ᄒᆞᆫ다 ᄒᆞᆷ이 업ᄉᆞ나 ᄒᆞᆷ의 별손로
이ᄌᆞᆫ 난신 ᄌᆞᄌᆞᆫ 존ᄒᆞᆫ 셔다 각ᄀᆞᆯ 이아노 ᄅᆞᆫ은 볼ᄒᆞ담 권

나부쇄의송거즌올시게쉐다가빗쳠네떡십이넝
공쥬여엇고쳬졍녀셤기눈골부올이갓쳐박구국쥬네
으연의간장은팔음이잇섬이라그입즁에바음을보근쥐
쉐로진뒤평일고연혀일을실펼쳐니브롯그연혈은그
바음의이니어즌연이낫타나눈비라그즁에바야흐로쉔
즌을보쉬국쳔봉헌쉐블리연이쑥내쳔싱을달닐길
쳬발숍에달후로갓기로계쑥베는밧쥐즁얼벋쉬게
됄는장본에화쳔적셧다지볼즁시ㄷ난을당즁시여
엇지인즁의공계혈벽연이화도쳔셔노즁이현론의연
즁여황청소식와젹보옹눈그리블쉬셧다니고즁여공
소현후회형셩손실이함몰즁ㄷ낭편이편남쳥이파
관쉐신소식올듣을오서ㄷ상이부황ㄷ동수즁손왕은숙
비변증셔이일은로의비양헐ㄷ굴안중이요굴시근긴남쳐인
위올은부규는시근울은가노양녀만일은지변의굴룡의인올못

비이ᄂᆞᆫ 거ᄅᆞᆫ ᄉᆞ셰의 복경ᄂᆞᆫ 자의 불ᄉᆞ을 이로 공 ᄌᆞ 자
흉을 복어스로 갑ᄒᆞ되 오ᄅᆞᆯ 시 다여 산 동쳔으로 ᄒᆡ혀
군셔고 춍의 반현 소식을 ᄀᆞ현쥐 상이 ᄃᆡ궁에 빌ᄂᆞᆫ 술을
봇혀셔야 가동 흉을 ᄂᆞᆫ 흉시 발쳐 갈 굿져 여ᄃᆡ 다 ᄒᆞᆯ 빈도
랑이 다 ᄒᆞᆼ을 다 ᄒᆞᆯ 내 흉 쳔양 ᄒᆞᆫ 셔 ᄒᆞᆫ ᄂᆞᆫ 날 졈이
불명 박ᄒᆡᆨ 혀 며여 가ᄎᆡ이 실을 ᄒᆞᆷ은 ᄯᅢ 신을 몰ᄂᆞ
보아시어 여ᄃᆡ 흉ᄅᆞᆯ 보쳔ᄒᆞ되 보ᄂᆞᆯ 시ᄅᆞᆫ ᄒᆞᆫ ᄆᆡ양 진을
보시며 흉ᄎᆞ을 나ᄒᆡ시며 ᄂᆞᆫ 지ᄋᆞ이 갈리ᄒᆞᆫ ᄂᆞᆫ 물에 망고ᄒᆞ
비ᄆᆡ되 ᄒᆞᆯ어ᄂᆞᆫ ᄃᆡ새 ᄂᆞᆯ은 쉬ᄋᆞᆺ ᄃᆞᆺ 재 못 ᄒᆞᆯ 쳔의 ᄅᆞ 왼을 신ᄒᆞᆫ이
불흉 부셔 ᄒᆞ아 쳔 이 재 ᄆᆡᆨ을 다 ᄒᆞ며 셔ᄒᆡ은 ᄋᆞᆯ 이은 ᄇᆞᆫ 이
좌로 ᄃᆞ 보ᄒᆡ오되 이 동ᄒᆡ로 ᄒᆡᆼ을 고 빌ᄂᆞᆫ 줄 소시 상이 되
게 기ᄉᆞ 그 손 미구을 ᄒᆡ 손 ᄌᆞᆯ을 보ᄒᆞ고 실서 ᄒᆞᆯ 셩이 님 ᄒᆞ매
나ᄂᆞᆫ 댜 굴이 ᄒᆞᆫ ᄌᆞᆯ 덤 ᄒᆞ 흉ᄒᆡᆼ이 ᄒᆡᆫ ᄌᆞᆫ을 ᄒᆞᆫ ᄌᆞᆯ ᄯᅥᄂᆞᆫ 옥
갓쳐 보ᄒᆡ오ᄂᆞᆫ 장ᄋᆞ이 ᄒᆞᆫ 쳔 동 굿ᄂᆞᆫ ᄉᆞᆫ 왈 징이 ᄆᆞᆯ 병

ᄒᆞ여여러경을당ᄒᆞ니찰ᄒᆞ되이곳의셔향ᄒᆞ여
보로ᄂᆞ니반갑지못ᄒᆞᆯ다ᄒᆞ실ᄯᅢ방지소ᄅᆞᆯᄒᆞ시니엇지된고
맹현의탈신ᄒᆞ여ᄎᆞ ᄒᆞᆫ장군신의두셜우
차시상이청졸의호병이에우믈보시ᄆᆡ망혈탄식
ᄒᆞ사결ᄒᆡᄒᆞ시던니통ᄒᆞ복지촉왈신등이ᄌᆡ
조엄ᄉᆞ오나결ᄒᆞ자ᄒᆞ여역을다ᄒᆞ여경을물감ᄉᆞ오리다
이의바랄다ᄒᆞ여왈우리난연이혈은을엄ᄉᆞ와졍이
도보혈ᄒᆞ리라졍ᄒᆞᆫ즉은상가ᄅᆞᆯ상가호병일신방오거든
동화촉은ᄑᆞᆯ노알나시랑이바지못ᄒᆞ여ᄉᆞ발게올ᄉᆞ옵
바달리일혈거을거나며남으로가시니동화ᄂᆞᆫ물
색혀ᄒᆞ잭ᄒᆞ여ᄂᆞᆫ회중의도화와후기ᄒᆞ니일혈져을블
녀아숙왈너의ᄃᆡ쵹ᄂᆞᆯ을버여혈은이방ᄎᆞᆨᄒᆞᆫ지
라실셔되여이색을당ᄒᆞ여홍봉이엽스러오니너

의로더부러힘을ᄡᅥᄒᆞᆫ여빙주ᄒᆞ시ᄌᆞᆯ의강ᄃᆡ가ᄒᆞ이
진혈진ᄃᆡ빗랑이ᄎᆞᆨ어ᄎᆡᆨ그바을으로ᄌᆞᆨ은갑기ᄋᆞᆯᄒᆡᆼ
각ᄃᆡ여힘라바ᄋᆞᆷ을다ᄒᆞᆫᄃᆞ바일ᄅᆞᆨ기을ᄆᆡᆸᄒᆞ리ᄂᆞᆫ
아시의모ᄅᆞᆯ니가ᄅᆞᄂᆡ빗랑이란거로ᄌᆡᆨ장을ᄃᆞᆼᄒᆞ리자
ᄃᆞᆫᄃᆞ라연이나ᄎᆞᆯ어모ᄃᆞᆫ군ᄉᆡ보다날ᄂᆞᄃᆡᄂᆡ되왈소자ᄃᆞᆯ
비록우ᄂᆡᄒᆞ나심장이잇ᄉᆞᆫ몸어지장군의ᄒᆞᆼ의을강
동치여ᄃᆡ잇ᄉᆞᆫᄉᆞᆨ화ᄒᆞ도ᄏᆡ치이여ᄃᆡ더ᄒᆞᄂᆞᆫᄌᆞᆼ이일
인이창병불응ᄒᆞᆯ니이ᄂᆞᆫ고ᄌᆞᆼ의가동오ᄎᆞᆯ우ᄒᆞᆷᄌᆞᆼ의죄
ᄂᆡᆺ더라동ᄌᆡ고ᄂᆡ리올베ᄒᆡ군ᄌᆞᆼ의ᄀᆞᆯᄒᆡᆼᄒᆞᄂᆞ시의ᄉᆡᆼ우
태군이ᄒᆡᆼᄌᆞᆼ속박보받ᄌᆡ와오ᄒᆡᄒᆞ고ᄒᆞ시ᄂᆞᆫ을므ᄅᆞᄂᆞ다
ᄉᆞ절건ᄒᆞᄃᆞ바로ᄃᆞ재못ᄒᆞᄂᆞ동ᄎᆡ찰ᄌᆞᆫ의계죄와거장
을ᄒᆡᆼᄒᆞ양ᄒᆞ의주이ᄎᆡ와일ᄒᆞᆯ거로죄우의버ᄒᆡᄒᆡᆼ우
ᄃᆞ표자을을ᄂᆡ위엄을표으ᄂᆡ군ᄌᆞᆼ이어ᄋᆞᆸᄉᆞ

하여조곰도겸하미오동하미엿스니셜엉의싱
즁녀일으키즁국인은재술이만타하더니반다시적병으
로매복하ᄂᆞᆫ우리율육인이니라하여만일을당하즁
녀종시나지못하니더라홱발날은노ᄌᆞ라상종셩의
두ᄂᆞᆫ통곡하여실아ᄂᆞᆫ져영해젼우ᄂᆞᆫ의심이만은열러
마날이져물며동채화하우을가ᄉᆞ로아장검괴해울
졀호의복ᄉᆞ이버혀날니쳐보ᄂᆞᆫ쉬현황칼ᄂᆞᆯ이한쪽
능을갈아야셕이붓농하등령이조보현ᄃᆞᆼ거해
챵검이ᄀᆞᆫ이버텃스ᄂᆡ의어ᄆᆞ츅하더파동최일쳔
거울셜셰의날와각ᄀᆞᆯᄂᆞᆫ병장기와ᄆᆞ로ᄃᆞᆼ을ᄀᆞᆯ내한
굴을ᄀᆞᆯᄂᆡ셩변으로ᄂᆡ북한후나속ᄎᆞᆯ리ᄂᆞᆫ일한
중되어ᄃᆡ의해쳑진의해ᄎᆞ퇴하거ᄂᆞᆫ일시의방조남
함해파해니ᄃᆡᄅᆡ행궁북편의쳑을동시ᄉᆞᆼ이잇ᄃᆡ라

동ᄒᆡ준슌을 자혹허ㄹ대 빈ᄒᆡᄉ 거쳔을 준쳘와 ᄒᆡ우ㄹ 빌
타ㄹ창을 돌너가 ᄆ언덕와 올나 호병의 동졍을 보
덩이야 심혹쳘위 호장다 상의 왈 병쳔 져어지 이가되
당위허 노리치의 장이 체ㄴ허여 종시고허 실을 알숑
스나 비실 빈치병으로 우삼 갈헐 비잇실이오 허ㄹ 비클초
남향허ㄹ 달아들ᄇᆡ 살허나 한준슌로 업ㄹ 도망헛거라
와등국이 병별허여 ᄊᆡ자ㄹ 패허나 편위 뒤경허여숙
운ᄒᆞ를 알ᄂᆞᆫ 준슈을 물너 ᄒ여 본륙 복헌ᄒ여 우의 석휘
도왈 쳔우는 ᄲᆞᆯ니 항복허라 ᄒᆞᄇᆡᄉ 범으로 항셩ㄴ로
쾅이 쳐ㄴ 피ᄆᆞᆫ 종허ㄹ 산쳔을 종는 쇄골 산셩이 상웅
굴여고 숙을 알숙 업더라 호변이 뒤란ᄒ여 항오을
쾌티지 못ᄒ며 ᄋ동쾌 벽복헌 군순을 물이나 뎜
즐ᄇᆡ 실흔 숙리을 물너 ᄒᆡᄇᆡ 셜위 천시을 ᄆᆡ

졍씨쟈우다혀왈 병현즁은 어대을 갓시며 우리
을 쇽던 장슉은 엇더한 ᄉᆞ람인고 이졔 항셩로 셩을
드로니 현즁의 휘하 장이 슉ᄆᆞᆯ 병의 자아 거ᄅᆞᆯ 노라 쳥
의ᄯᆞᆯ은 현셔ᄅᆞᆯ 노 힝궁의 계시며 급히 치변 내라
과하나 엇지 슉졀인ᄂᆞᆯ 어산 둥의 보기어 노쥴을 보ᄂᆞᆫ
즁군 동평을 부ᄅᆞ 되혀더라 동회션 우올 불내쟈
고일 현거을 져두어 보되오며 오ᄂᆞᆯ 우회 촌션 젹ᄀᆞ로 병
이ᄇᆞᆫ으 ᄂᆡ ᄇᆡᆯ나 꼿최ᄂᆞᆫ 병법의 거한 난병이 다 쥴ᄂᆞᆫ 궁
의일으혀 나추왈 호 병이 즁시 강헐 허실을 물나
한번은 숙엇서다 시는 컵빅 현ᄂᆞᆨ 방ᄂᆞᆫ 이 영슈ᄒᆞ니 일
션우의 대군이 곳을 지나가변 현즁의 안의기을 예탁지 못혀
치나 이ᄂᆞᆫ 내 ᄉᆞᆫ으로 쳑벽을 브네 ᄒᆡ 화ᄅᆞᆯ 복의 와혀 혀시ᄆᆡ
낭의 화더ᄂᆡ 이졔ᄅᆞᆨ 기ᄅᆞᆯ ᄡᅢ 바ᄋᆞᆯ 지니 ᄯᅢᄅᆞᆫ 이 갓최 혼ᄉᆞ우
브른 군셔 일ᄂᆞᆫ 시의 ᄀᆞᄅᆞ 응낙ᄒᆞ며 ᄂᆡ 즁회 ᄇᆡ구 편ᄃᆡ 라 동셔 낭방

츅복손이 바다해셔 과쳔을 ᄯᅩᆺᄎᆞᆫ 손 빅변 시여 븟을 여남을
비여 오래 되 즐을 날니며 의변을 ᄎᆔ현 ᄒᆡᆼ상을 ᄒᆡᆫ 뎐
ᄉᆞ변의 거졀ᄒᆞᆫ 즁 양희 방졀을 ᄎᆔ 기다 ᄒᆡ 타 ᄒᆡᄂᆞᆫ 소손 ᄌᆞ졍
을 빗쳐 킐 바란 괴로 진졀의 나와 셔 ᄒᆞ모물 ᄒᆞᄂᆞ니 효장이 바
졔슉 향을 ᄡᆞ호다가 동회 낭ᄒᆡ도 ᄎᆞ즐 니 젹쟝이 셜오
쳐ᄒᆡ 니 션왕의 심ᄒᆡ여 셩ᄒᆡ 군을 거두어 셜이 ᄂᆞᆫ 우ᄅᆡᆼ을
유인ᄒᆡ 바라 ᄒᆡ고 좀 시고ᄒᆡ 셜을 물오 [illegible] ᄡᅡ로 과양으 굴거
술동 ᄎᆔ여 시 ᄡᆞ호ᄃᆡ 이긔고 젼쟝을 ᄒᆞᆷᄭᅴ ᄒᆞ며 말을 니약
직ᄉᆞᆫ 욕ᄒᆡ며 후 ᄡᆞ호다가 말이 나 ᄒᆞᆫ 위ᄃᆡ 우의 심ᄉᆞᆯ
여ᄡᆞ 조지 아니ᄒᆞ더니 이 윌노 ᄒᆞ이 와ᄉᆞ거 ᄌᆞᆯ 쳥ᄒᆡ 기가지
변슌 취을 빌 즐 녕방 냐을 못ᄒᆞᄂᆡ 노 ᄒᆞ이 ᄌᆞ 왈이 ᄂᆞᆫ ᄒᆡ
왕이 슉 오시로다 우며 키궁이 ᄂᆞᆫ로 ᄆᆞᆯ 보ᄂᆞᆫ 변ᄒᆞᆫ 셰ᄒᆞᆫ 궁
물셔 ᄒᆞ화을 커ᄒᆞᆫ 일ᄅᆡ 쟝 슉ᄒᆞ 쳬 계을 소ᄇᆡ

나이죄즁히치소ᄒᆞ니일낭취ᄒᆞ야별군편장을
주라이라ᄒᆞ고위밧산발의ᄒᆞ여시야의군ᄉᆞ을함ᄭᅴᄒᆞ여라
시향궁을칠쇠편의군ᄉᆞ을ᄲᅢ혀놋코노ᄅᆞ라ᄒᆞᆫ왈적북
현ᄒᆡ파우을가三쳬왈ᄌᆡ거ᄇᆞᆫ병이위북어엽스되모죠
이소왈이는다의병이ᄒᆡ괴치오동치아니ᄒᆞᆫ누다ᄒᆞ이셔
줄이ᄒᆡ도이순슉이미파즁히치소ᄒᆡ셜위울히여
리ᄃᆡ군을보라ᄒᆞᆫ어갈ᄯᅥ이ᄉᆡ동최방진을친후적
병의통졍을기라ᄒᆞ엿고호병이ᄂᆞᆫ면으로치랑검이에
발ᄅᆞᆫ치듯ᄒᆞ거ᄂᆞᆯ동회쟝을돕ᄂᆞᆫ발되매군ᄉᆞ을보박빨
죽으볼검ᄒᆞ지ᄇᆞᆯ나우병이져쳠ᄒᆡ하난샹칠랑중
여현쟝의죽으면통의이ᄉᆞᆫ기ᄉᆡᆼ이퇴리라줄ᄅᆞᆷ을
날내동룡ᄒᆞ돌쥰어젹쟝을버히ᄂᆞᆫ행을ᄲᅡ어무쇠
르니쳥숫회기ᄋᆡᆼᄅᆞᆷ이ᄂᆞᆫ하다ᄅᆞᆫ발을옹의벽녁ᄒᆡᆼ이나니

병듯소ᄒᆡᆼ복조 어 [illegible] 강ᄒᆡ대 [illegible] 는 [illegible]

항일을 이은바 강지장이라 무쌍한 병장이 갈오대

노하여 대왈 내 장수는 어대 한 장수는 줄이 바라

보대 내 놀나 왈 동비 양장이 일조욱이 멸왕을 따라

운남의 가라 하여 어내 해의 온 발 일변 왕이 와 신변

화근이 타이의 션우라 해왈 이는 평장군 동태라 이불

라 할 부자 롱이 내 죽히 근심 하야 소채 쳥하 군사을 호

령하여 굽히지 마일 쳔군사 거내 텨 비애이 내 상하군 동

해 또한 호른 살을 나려 채황병이 호탄하거날 셜해

전상의셔 나타나는 노장이 산상의셔 그게 해여 발동

장군은 빨내 무양하여 노조욱이 불향하여 일대이

의 빗슬 비양하라 군의 불빗 내국에 엉나여 장조 이란

귀로 해 가재 수를 하야 낫다 시조욱 해하노 이해 항

별기향ᄒᆞ여 병북기엿지 좌장군의 작지이라
동ᄒᆡ춘 연을 돌은지 미러보나 니ᄂᆞᆫ득 절치부심ᄒᆞᄂᆞᆫ노
중ᄒᆡ라 ᄒᆞᆫ장목병영ᄒᆡ 이러ᄒᆞᆫ 징으로 가로ᄃᆡ 외를 반
쳑노 중ᄒᆡ 네벽 속지 단의 배실이 군ᄉᆡᆼ시 상덕ᄒᆡ 중
ᄀᆞᄒᆡ시 거늘 목어시 복죽ᄒᆞ여 목모지 죽을 벼반흘
오랑캐 게항북 굴여 비키울 러ᄒᆞ이 안 너울 긔비
ᄒᆞᆯ진ᄒᆡ리는 오ᄒᆡ여 족연을 아라 짐의 도적을 직희날
나네 져는 신병이 검어 살 길을 지젼 엇지 감아 적병을
도아 엇그제 셥기ᄂᆞᆫ 은 복을 검박ᄒᆞ고 ᄒᆞᆯ는 다너 가슨
반젹으로 일천지 ᄒᆞ여 냥남지 ᄭᅩᆺᄒᆡ여 ᄒᆞᆯ을 아라 ᄒᆡ
나라을 위ᄒᆡ여 죵일 ᄭᅬ이 죽어 더러온 ᄲᅡᆯ라 반복ᄒᆞ현
평ᄐᆡ울 보지 ᄭᆞᆯ 나라는 죵이 좌편을 돌은 별에 도셕ᄒᆞ
물여로라 중병을 도퇴ᄒᆡ여 에온 옥곱ᄒᆞ 좌ᄋᆡ고 돈ᄒᆡ 보괴

우총도를 ᄒᆞ여 ᄌᆞᆨ 장을 부총이 ᄋᆞᆯ 오ᄃᆡ
장ᄉᆞᆯ는 지용 장나어다 인헐 생이어라 예게 국말 총이
ᄉᆞ셩을도 편보자 아ᄒᆞ여 즘희 피라가는 샹해는 제반을
자이 쇠걷을 벗쫓근 말ᄃᆞ 어에 왜새일 ᄭᅬ발나 줄ᄂᆞ륵퇴
납은 굴ᄉᆞ을 모와 방전을 귀고 ᄒᆡ려라 이ᄋᆡ 일함 위제광
라상의 일을 병장의 거상이 총기을 관말 홀ᄂᆞ 그제장지봇
활지라 제장은 협벽ᄒᆞ예 혼실총의 너ᄒᆞ일 시의불
절으로 ᄒᆞᆫ대ᄒᆞ조 장이 형녕ᄒᆞᄃᆞ나 오ᄇᆡ지 효왈 병장은
네ᄂᆞᆼ이 오날 생이어 살ᄃᆞ ᄒᆞ허거ᄃᆞᆫ 항복ᄒᆞ라 ᄒᆞᄃᆡ 셩
여병 광쉬라 ᄋᆡᄀᆞ천 ᄒᆞᆨ글 ᄃᆞᆯ어ᄂᆞ 바ᄂᆞ 동ᄒᆡ으 바ᄀᆞ근ᄒᆞ라
퍼일 너왈 너어로 더부러 ᄌᆞᆨ어 총ᄒᆞᆯ이 돼리어 두
사음으로 ᄃᆞ지말ᄂᆞ 이의 ᄌᆞᆼ을 드ᄇᆞᆯ란ᄇᆡ러 ᄒᆞᆯ을 ᄒᆡᆼ
의셩위 적장을 대패ᄒᆞ고 나ᄒᆞ진의 서북쏘

귀졋지아니ᄒᆞ여 창검이 셔리갓ᄒᆞ여 동회
ᄌᆞ어ᄌᆞ지 상ᄒᆞ여 옥혈이 낭ᄌᆞᄒᆞ야 오ᄒᆡ례 ᄉᆞᆨ긴ᄒᆞ고 장
울질내거온 쇠ᄒᆞ지 아니ᄒᆞ더니 홀연 호진의셔 납
각이 ᄃᆡ란ᄒᆞ며 일원 ᄃᆡ장이 월도ᄅᆞᆯ ᄭᅩᆷ즈어 살갓
치 ᄂᆞᆯ나 ᄃᆞᆯ녀드러 ᄯᅱ기 호왈 쳔ᄌᆞ 명장을 ᄒᆞᆫ 칼에 베ᄂᆞ니 나ᄂᆞᆯ
내이 엿뎐 장셩을 하회 셕남

연왕과 젹혹남군 셜위ᄃᆡ군 젹진인

각셜 상이 바람을 ᄯᅡ라 시ᄂᆞᆫ 일쳔 거울 거ᄂᆞ리ᄂᆞᆫ 남으
가실ᄉᆡ 바람 다ᄒᆞ여 일으ᄂᆞᆫ 뒤 동회 반ᄃᆡ시 혹으뢰 조다ᄅᆞᆯ
시며 옹ᄂᆞᆨ을 나ᄅᆞ시며 밧 ᄒᆡᆨ울 잠ᄇᆞ오ᄂᆞᆫ 곳으로 ᄌᆡ보사
ᄎᆞᆷ변ᄒᆞᆫ 소셕이 엇ᄒᆡᆺ니 형ᄒᆞ시ᄃᆡ 변ᄒᆞ 바라보시ᄃᆡ
일ᄅᆡ거 ᄂᆡ이 ᄀᆞ려 그 광쉬ᄒᆞ야 ᄂᆞᆯ여 길기ᄒᆡ 어ᄯᅱ여 형괴
ᄂᆞᆯ거ᄂᆞᆫ 상이 보시며 남ᄒᆡ 좌비ᄒᆞ여 엿ᄂᆞᆫ 소욱경이라 상이
크게 반기ᄉᆞ 집츅ᄉᆞ 졔ᄅᆞ시며 소상ᄒᆡ 혹왈 [illegible] ᄉᆞ랑이을

[illegible]

ᄒᆞ도 변을 거나 되이로 비 상이 편은 을 녀ᄉᆞ와 화 변을

소ᄒᆡ 상아 스스로 군은 일을 ᄒᆞ오니 치난 반소 복색이로소이다

복원ᄒᆡᄒᆞ는 본ᄒᆡ 신의 죄을 다 소리 ᄉᆞ리 가정을 ᄭᅢ우게 ᄒᆞᆯ

조ᄒᆡ 상이 쳔이 붓흐려 탄ᄒᆞ여 왈 금일이 일랑ᄒᆞᆯ 본편

롱의 직언을 드지 안이ᄒᆞ니라 광이 ᄒᆡ 볼 병ᄒᆞ던 동은 ᄌᆞ을

쳐바 되기 이ᄒᆞ여 인ᄀᆞ을 발을 ᄯᅥ 두병을 모아 어갓치 구ᄒᆞ나

견의 흉셩은 ᄉᆞ화의 ᄋᆞᆯ은오나 붓고 ᄅᆞᆷ지 이나 점이 어지 견

물 보미 낫ᄃᆞᆺ 과오 블변ᄒᆞ 화 온ᄒᆞ 사ᄅᆞᆷ시 비ᄅᆞᆯ ᄉᆞ 뻥 무상

쇄을 졉쳐ᄂᆞ니 원슈을 비ᄒᆞ야 상쇄ᄒᆞ여 옥황궁 ᄃᆞᆫ 슈령

괴ᄒᆡ 더라 상이 남ᄒᆡ 병ᄒᆞ 소을 목그ᄭᅴ 상ᄭᅦ 흑와을 ᄀᆞᆼᄒᆞᆯ

강쥬ᄒᆡ가 반ᄒᆡ 못ᄒᆞ여 오ᄂᆞ 쳔가나 되어 이라 상이 편ᄒᆞᆯ 순왈 ᄒᆞᆫ

남의 주ᄒᆡᄂᆞᆫ 검이ᄒᆞ니 거ᄂᆞᆯ 동조을 ᄂᆡᄒᆡ이 ᄋᆞ 변외이야 파ᄒᆞ나 ᄆᆞᆯ

노남ᄒᆡ 병이 ᄒᆞᆫ 과을 기니 ᄒᆡ 동조을 주ᄒᆡ라 ᄒᆞᆯ시 ᄅᆞ 소상

쳐올시와케ᄒᆞ시니마ᄆᆞᆯ이황명ᄒᆞ여ᄒᆡᆼ궁을
향ᄒᆞ여용우ᄒᆞᆺ지ᄒᆞ고젼쳐나각을신ᄉᆞᆯ로군ᄉᆞ내롱ᄒᆞᆫ회섬
이졀ᄒᆞ여졍이위곱ᄒᆞ더니의와마ᄆᆞᆯ이ᄅᆞᆫ믈로몰ᄂᆞᆫ쳔셩을
가마ᄂᆞᆷ어일장을악젼ᄒᆞ여ᄌᆞ호젼이쳔연ᄒᆞ여져ᄂᆞᆫ거라나
연쌔연가슐ᄒᆞ여쥐믈방거나와마ᄆᆞᆯ이동ᄒᆞᆯ다라외ᄂᆞᆯᄂᆞᆫ구되
이쥐벽반ᄒᆞᆫ병을일ᄋᆞᆯ시와ᄒᆞ고쳐ᄒᆞ여보ᄂᆞᆫ지ᄒᆞ여이더라이쇄
ᄲᆞᆯ니버림가을ᄭᅩᆺ가시을ᄂᆞᆯ로어ᄒᆞ고ᄂᆞᆼ장이남으로거ᄂᆞ려
상이쇼옥장을다더시ᄂᆞᆫ쳐쳑셔의ᄂᆞᆫ시어비록쇠약ᄒᆞ여ᄂᆞ당
ᄂᆞ쳔인ᄂᆞᆫ아ᄂᆞᆫ쵸년과쳑ᄒᆞᆫ져ᄒᆞ다다시군쳐도병을몰아쳥
을직ᄒᆞ고ᄃᆡᄂᆞᆫ동ᄆᆡ낭장이인ᄅᆞᆫ메상이동ᄒᆞᆯ을인련ᄒᆞ시
보시어인ᄋᆞᆫ젼ᄅᆞᆫ로의혈은어난반ᄒᆞ긔라외옥권변ᄒᆞᆯ세
벼이ᄅᆞᆫᄉᆞ되절이인의이ᄅᆞᄂᆞᆫ평등의ᄀᆞᆫ이로더ᄒᆞᆫ시벼라면
바ᄋᆞᆯ무ᄅᆞᆫ서어동ᄒᆞᆫ쉐ᄂᆞᆫ이ᄀᆞᆺᄒᆞ여보ᄂᆞᆫ시오의부쳐복ᄀᆞᆫᄒᆡ
ᄒᆞ와쳑ᄑᆞ의ᄀᆞᆺ삼쳐ᄒᆞᆫ을마쳐병셔로쳑이ᄒᆞᆫᄂᆞ니

ᄯᅢ일을보내신주ᄒᆞ시나찬ᄋᆞᆫ이가지호 방ᄎᆞ 준온고ᄃᆡ
장쇠되여시셕룡젼은험ᄉᆞ혜온일이파셕벽을더ᄂᆞᆫ으소셔
상이조연상감ᄒᆞᄉᆞ흡경이을조시고쳔ᄌᆞ에광궈를
어두믹과시며동ᄐᆞ와내살을ᄃᆞ니아ᄭᅩ교거졍ᄌᆞᆫ을
바다시나이셔졀서도졍달쳔내라동도바달ᄉᆞ유평
이쥬우의뫼시여비록ᄂᆞ위텬군심은엽스나북편을바라
보시며진남셩소식을듯지못ᄒᆞᄉᆞ쵸조ᄒᆞ시더니차외
ᄃᆞ왕을진왕이활거삼쳔을보내여쳔ᄌᆞ을포위ᄒᆞ라
ᄂᆞᆫ표문이일으나데진왕이본국병을거ᄂᆞ려황셩
의가낭쳔이진남셩의계시믈듯고진남셩으로가낭쳔
뵈온ᄃᆡ휘반기ᄉᆞ진왕의손을잡으시고지난일을울어
ᄒᆞ시ᄆᆡ왕이주왈신이제쥬ᄒᆞᆫ병삼쳔거을보내여
조ᄂᆞ이다ᄒᆞ고이와본국병을보내ᄂᆞ이다상이ᄃᆡ희ᄒᆞᄉᆞ
졔신다려일으ᄉᆞᄃᆡ졔왕은문무가진계오ᄒᆡ도후

롱이러샹어제낭은좌우의로엿시나근섬이걸
너로다하시긔거하시더라시의쳔위운굴을어와서
잡으뫼혀다가수병이되야일시의도방하날볼위로발
십반귀궁이발리권장을잡지못혀든도촉혀방장을
방어샹의엿시녀엿지롱환을도모혀되요츨근대그을
모쟈바로궃즌혀혀위노궁이간왈디승을경영혀군
는쳑을본울생각지아니니산롱셩의가칙발날
라되횡진인을청하여혈존을음흉혀셔셜위왈
신롱셩은롱고타적회지아한가라올고궁이살왈
황샹이입하좌한장수일인라군소족편빤산롱셩
울적혈슈근섬혈베엄소뢰이라셜위그일을굿치
호장슈인을보니여산롱셩을적혀의라홀근궐인라혁
발분울도파홀나냥인이일운기천의병벽을엄

[illegible]

츄쳥ᄒᆞᆯ 곳지 업ᄉᆞ되 혼ᄌᆞᆫ ᄒᆞᆫ을 보시며 놀ᄂᆞᆷ ᄯᅢ인 젹은
셩이 업서 현명ᄒᆞ온 어제 비긋ᄉᆞ 뢰ᄂᆞᆫ 갓흔 근졍이ᄂᆞᆫ 흥ᄒᆞ엿ᄉᆞᆫ
소쳔이와 쥬나 비록 지쉬와 셩ᄎᆞᄒᆡ이 랑ᄒᆞ여 ᄆᆡ곤ᄂᆞᆫ어
엽ᄂᆞᆫ 즉ᄒᆞ여 ᄒᆡᄒᆡ옥ᄒᆞ여 ᄃᆡ궁어 봉ᄒᆞᆯ ᄒᆞᄂᆞᆫ 못제 보ᄒᆡ
거ᄒᆞᆫ 군신이 서로 ᄌᆞᆫ심ᄒᆞ디 니야 셤편홀 일진 부흥이 블
ᄆᆡ항쳥이 열ᄆᆡ 나니라 ᄎᆡ안이 ᄃᆡ편ᄒᆡ여 셰상의셔 바
화 벌니야 ᄉᆞᆨ이 화방ᄒᆞᆫᄃᆡ 무츄 ᄌᆞᆨ쟝이 룰을 러ᄒᆞ니 그디
라을 알지 못ᄒᆞᆯᄃᆡ 뢰ᄌᆞ시 ᄌᆞ셩ᄆᆞᆯ을 ᄋᆞᆺᄒᆡ오 ᄒᆡᄒᆡ을 파ᄒᆡ
ᄃᆡ적병이 남ᄒᆞᆷᄒᆞ며 셩을 에와ᄊᆞ니 소샹ᄉᆡ 공ᄉᆞᆫ을 모
화 ᄇᆞᆨ으나로 셔ᄋᆡ 진동ᄒᆡᄆᆡ 물끼 ᄭᅳᆺ덜ᄂᆡ 물ᄃᆡ 바회 기ᄉᆞᆫ
쳘ᄒᆞᆫ이 셩문을 ᄭᆡᄯᅥ ᄎᆞ강이 ᄆᆞᆯ어져 ᄂᆞᆫ시샹ᄉᆡ 낭쟝ᄃᆡ의ᄂᆞᆫ
ᄯᅩᄂᆞᆫ 병가을 모셔 연소쳔으로 모실셔 상이 초쳥ᄒᆡ와 츄쳔
거을 지어ᄃᆡ ᄉᆞᄯᅢ오 쳥의ᄂᆞᄉᆞ며 ᄌᆞᆨ병이 발ᄒᆡ셔 ᄒᆡᆼ을

함몰ᄒᆞᆫ 병홍와 줄임ᄒᆡ 냉동 마방 자랑이 공손을
거나ᄒᆡ 쳔ᄌᆞᆫ을 시위ᄒᆞ여 연소ᄒᆡᆼ왜ᄂᆞᆫ 신홀 불을 ᄃᆡᆺᄂᆞᆫ 방비
혈셔호 ᄲᅧᆼ이 ᄯᅩᄒᆞᆫ 연소ᄒᆡᆼ을 쳘ᄂᆞᆫ 동 ᄒᆡᆺ되에 와 심연 회ᄯᅴ
옛ᄌᆡ 쳔ᄂᆞᆫ 쳘시의 연 완네 동ᄯᅵᆼ 장을 보내ᄂᆞᆫ 국가 불은
섬ᄒᆡᄂᆞᆫ 염내 방하 되 못 속시영을 쳔ᄒᆡ ᄒᆞᆫ 못 ᄋᆞᆫ 조회
내일야ᄂᆞᆫ 쳥ᄒᆡᆼ의 간날ᄯᅢ 양란ᄒᆞᆫ 상ᄒᆡ나 되엿ᄂᆞᆫ 국쳔의 ᄀᆞ
분과운이 가ᄒᆡ 량ᄎᆞ을 일어 시어 난셩ᄒᆞ여 가ᄃᆞ ᄒᆡ정이 ᄃᆞ
욕ᄂᆞᆫ 섬ᄒᆡ ᄃᆡ이 향셩으로 오몬을 ᄂᆞᆺ 견대 쳥이 홍신의 간
담에 소삭ᄒᆞᆯᄯᅢ 다왕이 부ᄒᆞᆫ 통곡ᄒᆞ다가 거ᄋᆞᆼ이 ᄯᅡᄒᆡ
ᄑᆡᆼ신을 일ᄋᆞ난 쳥이 ᄯᅡᆼ지 소조ᄒᆡ여 호연으로 의구ᄒᆡ나
ᄯᅳᆯ아ᄃᆡ 거쳑ᄒᆞᆯ아 못아 부ᄒᆞᆫ ᄎᆡ음ᄒᆡ내 식음을 ᄯᅡ시지
아ᄒᆡ ᄂᆡ지라 ᄂᆞᆫ 쳥이 ᄇᆡᆫᄯᅡᆼ ᄂᆞᆫ여의 ᄌᆞ왈 상ᄌᆞᆼ이 국가을 뇌
ᄃᆞᆫ손 ᄂᆞᆫ 불ᄒᆞᆯᄂᆞᆫ ᄀᆞ져ᄒᆡ 심ᄒᆡ이ᄂᆞᆫ 홍이여라 지ᄎᆡ를 보ᄃᆞᆯ
순하 발ᄉᆡᆼ쳔의 ᄃᆞ회고 ᄯᅢ라 국순을 ᄃᆞ리ᄋᆞ고 ᄋᆞ사나가

일몰듕방ᄃᆞ니되초ᄒᆞ엿ᄉᆞ공일삼의ᄃᆞᆯ벗ᄉᆞ오자삼산ᄀᆞ궁
소로혜올ᄂᆞᆫ보ᄒᆞ시ᄂᆞᆫ쾌빵의일ᄂᆞᆫ츄강ᄀᆡ을생각ᄒᆞᆯ쇼쳐앙
이강리오열일ᄒᆞᆫ황셩이함몰ᄒᆞᄂᆞᆫ국가잘왜올모르니엿
재주연시ᄉᆞ작ᄒᆞ여안여평셕ᄒᆞ대요이쳬리ᄇᆡᆼ이열신의게
벼결퇴외ᄂᆞᆫ쳔죄모이어고리비ᄋᆞᆼ국고안니리요ᄒᆞᆫ내국쉬너리
불식ᄒᆞ지못ᄒᆞ여보복상대를여비옵ᄂᆞᆫ데분쳔이줄
네ᄇᆡ찰셔황ᄇᆡᆼ을평ᄒᆞ거즐왕이통촹ᄒᆞᆫ비ᄒᆞᄂᆞᆫ조쳐
울올어려누쉬비오초쳘소울ᄃᆡᄒᆞ여소셕올ᄂᆞᆫ시볼가
연비ᄃᆞ리ᄆᆞ왈ᄎᆞᆼ국이비록볼ᄒᆞᆫ목져ᄒᆞ야ᄂᆞᆫ복의우ᄒᆡ
ᄒᆞ시불로ᄂᆞᆫ엇지ᄂᆞᆫ쾌ᄒᆞᆫ회오이의운남ᄒᆡ츈을보아ᄂᆞᆫ뱡
조발고쳐ᄒᆞ야ᄂᆞᆫ온쾅두ᄅᆞᆯ다ᄒᆡᄂᆞᆫ국향ᄒᆞ자이의발을
쳐쳔볼ᄒᆞᆫ의일오리ᄂᆞᆫ연울이조ᄂᆞᆫ빌부병을발ᄂᆞᆫ계줄
쾌롤ᄂᆞᆫ일광작ᄒᆞ울각거방의보내ᄂᆞᆫ셩ᄒᆞ가ᄎᆞᆼ쾅욱
울가야패남으로강이이ᄒᆡᆼ남방쳬ᄀᆞᆫ에연왕의게

셔울보ᄂᆞᆫ 본ᄃᆡ 졍왕ᄒᆞ여 비션을 ᄇᆞᆯ희ᄯᅥᆫ 왕은 졸ᄒᆞᆫ 신
이오리용이가즐지파나라의셔 쇼시변엿거쥴 변을근심ᄒᆡ
티오우리쥐사을ᄃᆞᆼᄒᆞ여 ᄉᆞᄒᆞᆫ모을쇄우리쥐ᄒᆞᆫᄃᆞ 숏쳥은갈
오귀연왕은 병장이오ᄂᆞᆫ형이리엉ᄒᆞᆫ어과 변쥭을이ᄅᆞᆫ즁
여낭ᄇᆡᆼ이불ᄉᆞᆯ듯ᄒᆞ더자어의ᄌᆡ군이나쥭ᄒᆞᆫ날을당ᄒᆞᆯ
여얼ᄒᆡ에모도여라 ᄎᆞ셜 ᄎᆡᆫ연 소쳥에ᄃᆞ신재칠일이라
젹장의숙을알ᄂᆞᆫ숙엽셔 감히나셔ᄡᅡ잭볼ᄒᆡᄂᆞᆫ셩본을ᄃᆞᆼ
ᄃᆞ이긔ᄒᆡ여 연왕의오기ᄇᆞᆫ기다리ᄃᆞᆯ셔셩외날ᄇᆞ다셩ᄒᆡ의와
ᄊᆞᆺ기ᄂᆞᆫ옥ᄃᆞᆯ나온통ᄃᆡ아니ᄒᆞ니ᄌᆞ라ᄒᆞᆫ왕ᄂᆞᆫ줄을보니여ᄊᆞ
ᄒᆞᆷ울도두거ᄂᆞᆯ ᄇᆞᄅᆞᆯ이보러울람재못ᄒᆞ여ᄒᆞᆯᄇᆞ랑과ᄃᆞᆫ강
울ᄃᆞᆯ나와크게쏘지ᄒᆞ엿쟉으ᄂᆞᆫ온데ᄅᆞ아엿지나와ᄉᆞᆺ
호ᄒᆡ여ᄃᆡᄂᆞᆫ마연ᄒᆡ의ᄎᆞᄒᆞ되ᄒᆡ니ᄂᆞᆫ줄이옷도ᄅᆞ가니ᄇᆞᄅᆞᆯ
이마토ᄂᆞᆫᄎᆡᄒᆞ더니ᄒᆞᆫ편의셔부ᄎᆡ ᄊᆞ홈을도ᄃᆞ니병졀의셔
졍ᄎᆡ주울ᄇᆡ구다왕ᄎᆡᆼ의군병이엉ᄃᆡᄉᆞ니ᄇᆞᆯ은셔ᄀᆞᆯ쏘되

울소래내여궁을갈해며옹엉어옥채해시여괴워여지
현을홀보드려라홀연일뒤변이ㄹ드려호관여견쳐을베
흐우다해거출군신이의아해여형상을나란ㅂ해현디
라연일시병이살갓쾨드려와남편의얼존로전혀을베러
의결절의죽장해나채서어생에괴우다해무론서나중회여
옥어보다가롯욀을이반다서연왕의주병인가허오나괴편의
오스홍로조빨곰비울잡아잣은손을연왕이오편로생겸을
군사을지휘해는돈는홍도칼이로소이다상이드드시근희
동안석해손존셍이쇄로되라을며살길을어더다해더라
시의연왕이운남으로오는길이조강해을지날어연왕이
현손다해앨너왔을이쾌당펴로가번칭출의방나이엄ㄷ
군서어오는디주강은손근의군손강생현곳패다옵홍운술
여여갑이조드다출근주강해옥을보근휘한번청해여주
해옥는노졸의가인이화고를재군는을주지안여

왈 황병이 잇스나 엇지 병권을 오동ᄒ여 가ᄅ오
왕이 ᄃ로 왈 그ᄃ 국녹지신이 되여 군부 위ᄒ여 셔 물동념치
아니ᄒ여 그리 방ᄌᄒ니 이 신은 ᄌ시ᄒ여 이ᄯ편 ᄒ소
여기 엇시니 엇지 황병이 엄ᄃᄒ여 오병권을 평국을
주시던 젼ᄃ게 스ᄉ로 나ᄃ 대장국을 ᄭ과 구강ᄃ
슉을 왈 ᄇ면 호병이 좌층 간 일으며 통원을 일ᄒ여
셰이 국강변 발ᄂ 심강변이 변엿지 ᄒ리오ᄒ며 거신ᄋ
이당ᄃ여 졸계죽지 아닐계 신이 당왕이 ᄃ로왈 너일
즉 황병을 ᄇ수ᄂ 국일 평남ᄒ되 원슉ᄇ 살이오ᄒᄃ니
몸의 의시니 엇지 국슌의 권을 을 실재이ᄋ ᄒ며 오ᄂ ᄂᄂ 헌
산의 ᄒ 말 갈을 ᄲ여 ᄃ려 속의 ᄂᄃ여 을 버ᄒ 호령ᄒᄂ 명부
울아 쉬ᄂ 마우로 발히 나 상천ᄒ 거ᄅ고 을 ᄂ여 ᄃᄅ 리치
창검을 비ᄅ며 ᄃ야 ᄭᄂ 비일ᄂ 병행ᄒ여 ᄯ 죠 ᄶ 셩시나

ᄇᆡᆨ고이ᄂᆞᆫ대낙ᄇᆡ최공의흑공ᄒᆞᆫ공ᄉᆡ잘뫌ᄒᆞ고ᄒᆞ
비로소ᄒᆡᆼ오을평ᄒᆞᄂᆞᆫ행군ᄒᆞᆯ시연소쳔의쳔리도
쳑의게쇽여곤ᄒᆞ시믈뭇ᄂᆞᆫ왕이날나왈연소쳥은
재ᄒᆡᆼ이츙ᄂᆞᆫ군당이영ᄉᆞᄀᆞ오ᄃᆡ계시변낭ᄒᆞ계자아
내실지라본쳐쳔우의ᄒᆞ게군을보낸후다시의논ᄒᆞ리
타ᄒᆞᄂᆞᆫ호진남쳔의일은호진을치ᄂᆞᆫ군ᄂᆞᆫ쳔을니에
의난화볼복ᄒᆞᄃᆡ즘아삼겹의ᄉᆞ번으로비복ᄒᆞ엿다
가우되전졍의쳐방으로소ᄒᆡ나라ᄅᆞᆫ쾌일되일ᄒᆞᆫ러난
남향ᄒᆞᄂᆞᆫ호진쳐쳔쾌일각을겹박ᄒᆞ여도ᄆᆡ그ᄉᆡ을
니여보ᄅᆞᆫ게ᄒᆞᆫ믈니나ᄅᆞ득번방으로소ᄒᆡ나거ᄂᆞᆫ쾌
이ᄃᆡ별쳔거ᄂᆞᆫ남향ᄒᆞᄂᆞᆫ호진ᄅᆞᆫ쳔쾌에각을겹박
들키라쇠ᄆᆡᆫ니여보ᄅᆞᆫ게ᄆᆡᆫ헌후믈니날쇠번젼방
호형이나라ᄂᆞᆫ호진쇠쳔쇄삼각을쾌보ᄅᆞᆫ게

즁ᄃᆡ변조셩을 응ᄒᆞ여 ᄆᆡ ᄉᆞ리 일월 쳔리는 됴진
동편 졔ᄉᆞ 가ᄋᆞᆯ ᄒᆡ 가리에 불 비ᄃᆡ 긋ᄒᆞ여 가ᄋᆞᆯ희고
재ᄇᆞᆯ나나 쇽을 쳥ᄒᆞᆫ 호왕이 남은 ᄌᆞ손을 ᄆᆡ양ᄒᆞ여 일을
긴ᄉᆞ진 믈ᄒᆡ 룡강 불 흉ᄒᆞᆫ 일 ᄉᆞ셩 거ᄒᆡ 가젼 ᄒᆞᆫ 망
ᄒᆡᄂᆞᆫ 즁시 玉 홍가진 ᄂᆞᆫ 뒤ᄆᆡ ᄒᆡ와 복ᄒᆞᆫ 번 뎌ᄂᆞᆫ 데에
리로ᄉᆡ 옹기ᄃᆡ ᄇᆡᆫ 일 됴타 보ᄂᆞᆫ ᄌᆞᄂᆞᆫ 광ᄒᆞ리라 ᄒᆞ여 쉬
변화ᄒᆞ랑ᄒᆞᄂᆞ다 ᄒᆞᆺ번 나 쇽ᄒᆞᆫ 후 밤을 가다ᄒᆞ 군중의
하평ᄒᆞ여 짓거리지 ᄇᆞᆯ 보통 치 못ᄒᆞ게 ᄒᆞᄂᆞ지 치겸
울 누여 자ᄂᆞᆫ 듯ᄒᆞ더라 시의 ᄇᆡ 울 쳔위 연일연 소셩을
애와 ᄉᆞᄒᆡ 상의 왈 이일 쳔ᄂᆞ셩의 근낭에 잔ᄒᆞ며 셩일지
비뢰 ᄒᆞ여 쳔ᄒᆞ ᄒᆞᆼ 변을 못지 아니ᄒᆞ리로ᄃᆡ 안ᄀᆞᆺ밧게셔
[illegible]병명이와 진뢰ᄂᆞᆫ 과셩이 왈 ᄒᆞ여 곰ᄒᆞ 된 도ᄀᆡ 아ᄒᆡ가 늘
현뢰 이 올 보ᄂᆞᆫ ᄉᆞᆯ한 이아흘 나우여 왈 이 모리 우 녀복
남현 나ᄀᆞ 병이 조야 나ᄐᆡ ᄒᆞ 보ᄂᆞᆫ 말 강ᄒᆞ여 병어 곰하삼

정의[illegible]환 북의파허되 ᄀᆞᆫ다 ...
병조의 함쳥에 진동ᄒᆞ니 얼지 근뒤 진을 걸바ᄒᆞ여
즁상은 ᄒᆡ나셜 수레 경ᄒᆞ여 권이 ᄀᆞᆫ손을 지휘ᄒᆞ더니 ᄀᆞ
울ᄯᅡ파 상셔 방조의 소변으로 이러나 듕옷을 ᄲᅮ으면셔
뉘ᄎᆡ 홍도를 ᄃᆞᆯ고 셔올치 변동이 봉ᄒᆞᆫᄒᆞ며 ᄇᆡᆺᄉᆡ ᄒᆞᆼ오을
칠이 지ᄂᆞᆫ 파우북변에 실갓치 드ᄒᆡ 운셔리 갓흔 ᄲᅡ
괄은 비발치듯ᄒᆞ며 숙ᄒᆞᆫ 북소ᄅᆡᄂᆞᆫ 진동ᄒᆞ여 그날ᄭᅴ
급ᄒᆞᆫ 번ᄀᆡ 갓흔ᄃᆡ 설우의 ᄃᆡ군이 불의지변을 당ᄒᆞ여 창
황ᄒᆞᆫ 가온ᄃᆡ 총강 못ᄒᆞ여 ᄎᆡᄭᅵ을 도ᄒᆞ야 보지못ᄒᆞ여 나ᄂᆞᆫ즁에
쳔우ᄃᆡᄒᆡ 왈 즈손을 잡간 거두소ᄒᆡ 이ᄂᆞᆫ 실상ᄒᆞᆫ 주명이이
네자지나가ᄂᆞᆫ 장숙년 왕낭 ᄎᆡᆼ숙이ᄒᆞ이다 ᄒᆞᆫᄭᅵ의 연소
쳥의ᄒᆡ 조쳥이ᄒᆞ여 ᄲᅢ왈 나ᄂᆞᆫ 연왕의 ᄒᆡᄒᆞ라 동조ᄭᅡ
달이 나ᄃᆡ 젹ᄒᆞᆯᄅᆡ 이오거동 나오파ᄒᆞ여 ᄂᆡ동 동ᄒᆡ

돌뢰나이는연왕의궁에호진의ᄯᅪ호ᄇᆞᆯ보ᄃᆡ
러온이비ᄅᆞ희여진왕의쳘게삼쳔병을거ᄂᆞ려호진
을시살ᄒᆞ여낭군이호빙을깃치나쳘우쳬당치못
ᄒᆞ여바ᄭᅥ믈너갈ᄉᆡ쳑시여산의ᄯᅢᆯ노셩ᄒᆞ이ᄯᅡ이시
상이연초셩의ᄭᅴ신ᄎᆡ구일삼일쳘ᄂᆞᆫ녕ᄒᆞ시니시위일
이방숙ᄒᆞ여여다모되현ᄌᆞᆯ모ᄅᆞ더니군사들이흉염을
엇ᄭᅦ는거슬보시ᄃᆡ가져오라ᄒᆞ온진에ᄒᆞ시ᄃᆡ오ᄅᆞ쇠을ᄯᅧᆨ
의오롱홍ᄒᆡ버혀ᄂᆡ옷은의ᄋᆞᆺ슬ᄂᆡᄂᆞᆫ평상이나눈의봉이
는거시잇ᄉᆞ지의ᄃᆞᆯ넌눈비이ᄯᅡᄒᆡ더ᄂᆡ여연ᄋᆡ는호ᄃᆡ점
이쳔셩이여ᄃᆡ여흉염을씻ᄂᆞᆫ힘을쓰ᄂᆞ키ᄒᆞ여올거ᄃᆡ불
알너초다즐식너시상이낙ᄀᆞᆸ더리ᄇᆞᆷ도롱비상장으방
쳔해숙ᄒᆞ더니상이ᄎᆞᄌᆡ여숙ᄒᆞ시더니연왕뒤ᄌᆞ병
이로ᄒᆡ뒤쳔ᄒᆞ믈보시ᄃᆡ상이갈ᄋᆞᆫ되칭죽은각별

유와ᄒᆞᆫ 순장을 ᄒᆞ시

직일아ᄒᆡ러 ᄒᆞᆯ이 ᄎᆡ도ᄋᆞ니 삼ᄌᆞ의 연뎡 지ᄆᆡ 이연왕

의복소ᄒᆡ의 여ᄂᆞᆫ시의 ᄒᆞᆯᄃᆞᆫᄒᆞ니 이ᄌᆞᄒᆡ국가흥복

다ᄒᆡᆼ명의 실ᄒᆡ로다 징이、ᄒᆡ션ᄒᆡ나가 마ᄋᆞ터라 ᄒᆞ시

ᄃᆞ형ᄒᆡ나시ᄂᆡ 연왕의 군이 엉와 ᄒᆞ의 ᄆᆞᆯᄋᆞᄒᆡ싱이 ᄒᆡᆼ

ᄲᅡᆼ이ᄒᆡ ᄲᅡᄒᆡ여 복지청죄ᄒᆞᆯᄉᆡ 슌ᄂᆞᆯ이 ᄒᆞᆫ숨을 보ᄒᆡᆯ지、

좌상이 굴ᄉᆞ로 연왕을 못ᄒᆞᄃᆡ 일을 ᄒᆞ여라 ᄒᆞᆯ슌 그ᄋᆞᆫ을

잡으시ᄂᆞᆫ 용포로 얼굴을 가리오ᄉᆞ 군실이 ᄎᆡ조로옵

굴서ᄂᆡ 좌우 시신이 셩조을 어둔가 온뒤나 지ᄂᆡᆫ 바ᄋᆞᆯ 상

감ᄒᆡ여 나ᄀᆞᆺ 누ᄒᆡ 울ᄲᅡ지 이여ᄐᆡ 타양ᄌᆞ이 ᄇᆞᆯ 슬을

봇ᄒᆡ시다가 일으ᄉᆞᆫ 쥐 집의 복중ᄒᆞᆫ 심ᄉᆞᆫ 톤ᄃᆡᆼ 풀ᄂᆞᆫ 가다

몰ᄲᅮᆯ 풀ᄂᆡ 셔ᄒᆡᆼ 종의 ᄃᆞᄒᆡ가 ᄉᆡᆨ 일 그리던 정ᄒᆡ을 라

시ᄒᆡ되 ᄒᆞ 좀 시ᄃᆞ 쳥의 ᄃᆞᄉᆞᆫ 왈 징의 낫되 감ᄃᆞ 호이

물헛딧괴못ᄒᆞ니ᄂᆡ쟐은의혼곤이ᄒᆞ며술나겸갓
혼혼곤이엇실이오경의흉연라노졸의가악ᄒᆞ불아
지낫ᄒᆞ나유착이ᄒᆞᆫ속ᄒᆞᄂᆞᆫ흑빅이붕병ᄒᆞ미소연ᄒᆞ거
ᄂᆞᆯ은취ᄒᆞ여화을부ᄅᆞ니왕손을축이친뒤복숭낫ᄎᆞᄂᆞᆫ
쵸조션을ᄯᅦ히녀경을보ᄒᆡ오왕이ᄂᆞᆫ슉즉왈이ᄂᆞᆫ다
국운소희로신의불룽이ᄒᆞᆫ싞을돌니지못ᄒᆞ온지
라ᄇᆞᆯ일ᄂᆞ월지병이어신죽다시ᄂᆞᆫ전을입ᄉᆞ와오ᄂᆞᆯ
ᄂᆞ이엇실이ᄂᆞᆫ왕이옥으시ᄂᆞᆫ길이오ᄂᆞᆫ취겸이엇지ᄂᆞᆫ졸의
간손ᄒᆞ불ᄒᆞᆫᄒᆞ물낫시ᄒᆡ오ᄆᆞ순궁사ᄅᆞᆷ이라ᄂᆞᆫ리선의
아령ᄒᆞ불조히ᄂᆡ기다가히ᄂᆞᆫ지촉ᄃᆡ여사여편죡ᄇᆞᆫ
키의어둑온일홈을변ᄒᆞ여조ᄇᆞᆼ취보ᄒᆞᆯ거시오병
의ᄒᆞᆫ국ᄒᆞᆫ정ᄒᆞᆼ은ᄒᆞᆫᄒᆞ간ᄇᆞᆫ라아중즉ᄌᆞ줄이ᄂᆞᆯ을
ᄌᆡ영을거시오후ᄒᆡ손ᄌᆡ의란일ᄒᆞᆼᄌᆞᆼ의ᄌᆞᆫᄌᆡᄒᆞ되

이로되부쳐되니경운왕손을기ᄅᆞ되괴ᄇᆞᆯ나혼곰이ᄒᆞ곤ᄃᆡ
옥직가ᄒᆞ여다ᄉᆞᄒᆞ물이업게ᄒᆞ라왕이존ᄎᆔ케ᄒᆞ엽죡
됨을ᄒᆞ고제존ᄒᆞ샤다ᄉᆞ여ᄋᆞᆯ혈ᄇᆞᆫ숩이업ᄉᆞ온니이
눈ᄯᆞ신의블롱무신리ᄭᅴ타요ᄎᆞᆫ지다오포도근오직
셜의ᄎᆞᆫ낭ᄒᆞ시니잇ᄉᆞ온니쳬ᄒᆔ의일은왼ᄃᆞᆯ거병으로ᄯᆡ존
환난을당ᄒᆞ시믈조졍의신하엽ᄉᆞᆫᄯᅧᄒᆡ오니복원ᄒᆡ
ᄒᆞᆫ안왕손ᄂᆞᆫ이여ᄋᆞᆷ니ᄇᆡ득을삼가시변이죵히금일
낭ᄒᆡᄒᆞ시니죡히즁제되을ᄌᆡ에이근국가의복이이다
되잇ᄂᆞᆫ상이리용탄식ᄒᆞ샤왈짐이오히ᄎᆔᄒᆞᆫ쥬ᄋᆞᆼ길
ᄒᆞ엿더니연왕의직연을ᄃᆞ리ᄂᆞᆫ니ᄃᆞᆫ연이평씨이ᄃᆞ랑ᄋᆞᆫ단
도ᄯᆞ왕이우ᄎᆔ왈신이오남서즁보을조ᄎᆞᆸᄂᆞᆫ단거ᄅᆞᆯ
오라가ᄌᆞ강ᄯᆞ와와군신을ᄃᆞ빌고ᄒᆔᄒᆞ온ᄃᆞᆫ주

강퇴쉬를려죽지아녀기는쉐부죽비군술은
쇄국강퇴속의내텨울베하고휘한병을거나려오는
오나부의흉치아니하믄속령을죽안제울번쳐못흔올
지라황증은죄하나이다상이당쇼시되평난대도독인
속는정이가혓서여장속된죽군령을쓰이죽가고오
라하여물벼령의벼실이되신이오랍이블변하나구강
쾨쉬즐부의위티하여블뵈그티반하여선참후제하여
위죽지십이라여지는죄하려보돌시군그셩병을부흘
시이이는노군의가인이라하거늘상이탄하순왈비와
일오위호는져분의좋신을주려라하니죽인의분인
에는십이년스되온줄시더라왕이수죽왈도원이여념의
라하여엇다하며[illegible]키호주공졍이저남텬의계시라하오나진
남셩은영시갈로현셩자옹니다르뵹벼근녕옥은오나국은

의빵국ᄒᆡ이자젼인잇ᄉᆞ온ᄃᆡ셔왕의보ᄒᆡ시자
뫼로ᄂᆞ이다샹에용구을내리ᄉᆞᆫ왕을황키획일으이
평음을젼ᄒᆡ온졍을다서ᄉᆞ차ᄒᆡ시매다구의졍을
빌ᄂᆞ시ᄆᆡ뒤신덧긔알은으셔건ᄃᆞᆯ짐이불호ᄒᆡ여별계ᄒᆡ
세물로고리양ᄒᆡᄅᆞ일편ᄅᆞ연의고ᄅᆞ을격고시게ᄒᆡ여이
는다겹의ᄒᆞᆯ이ᄒᆡ평에키인이을각노와일지면을다
뫼ᄂᆞᆫ일심으로보호ᄒᆡ이경의부ᄌᆞᆫ용션의ᄃᆡ신가ᄉᆞ론ᄃᆡ즁셩
을장쳣무어스로다강호케되왕이평교의ᄂᆞᆫ나ᄂᆞᆫ빈ᄭᅴ
잇셔낭주이ᄯᅡᆯ이업스니ᄒᆡ야의ᄂᆞᆫ빙열희ᄒᆡ진남셔의
잇ᄉᆞ시물로지못ᄒᆡ여ᄃᆡ가비로소쳐ᄅᆞ을으미놀ᄂᆡ이자
샹이지과ᄒᆡ시ᄂᆞᆫ위ᄏᆡ호ᄒᆡ신왕을경빅비록쳐평이나ᄉᆞᆫ실의
소졀을ᄃᆞ토ᄂᆞ니곤ᄒᆡᆨ이강ᄒᆡ여소년간다ᄅᆞᆯ내여은염ᄃᆡ
회ᄯᆞᆯ나왕이ᄒᆞᆫ슉ᄒᆞᆫ화ᄅᆞᆯ신의아비븐ᄃᆡ절병이

이ᄉᆞᆷ은셩품이쳥ᄒᆞ여ᄒᆞᆫ쟉ᄒᆞ즉잉ᄒᆞ여여ᄂᆞ
온몰불평ᄒᆞᆫ세ᄇᆞᆫ승ᄒᆞᆫ시셕홍진의과ᄂᆞᆫᄒᆞ여도나평
일홈은바흉심을오피ᄒᆞᆨᄒᆞ여물모로온ᄂᆞ신어ᄂᆞᆨ으로
불롱ᄒᆞ와폐ᄒᆞ야욕을보시게ᄒᆞᆫ불효ᄒᆞ와져ᄉᆞ의저
ᄂᆞᆫ아비로인ᄒᆞ지못ᄒᆞ게ᄒᆞ오ᄂᆞ이울셩가ᄒᆞ오번ᄂᆞᆫ면
심서지ᄒᆞᆼ지못ᄒᆞ나이다상이그호심을감동ᄒᆞ시리
온변셕ᄒᆞ서ᄂᆞᆫ위로왈이다렴의ᄅᆞ실노뒤회ᄇᆞᆫ욕
ᄒᆞ사위곱지시의경뉘우ᄭᅧ지심으로곱난을변계ᄒᆞᆯ
배나쳥을불ᄂᆞᆺ켜념로다ᄒᆞ시ᄂᆞᆫ홍난셩을ᄌᆞ로시ᄂᆞᆫ
셩이ᄒᆞᆸ쟝의[illegible]복현ᄒᆞ여상이뉘우ᄎᆞ시ᄆᆡᆼ단ᄒᆞ여알
모은뒤쎄간의홍난셩일ᄂᆞᆫ인도리이ᄒᆞᆫ일이여ᄂᆞᆯ일지면
벅셩쳔의ᄎᆞ키여ᄂᆞᆫ홍셩이찬홋ᄇᆞᆫ뒤의ᄒᆞᆫ하ᄒᆞᆫ일이
이쟈ᄒᆞ로다ᄒᆞ시ᄂᆞᆫ셩ᄉᆞᆼ의ᄀᆞᆼ옷ᄉᆞᆯ세간ᄒᆞ고ᄉᆞᆯ빌라면

방의 낭쳔ᄌᆞ ᄒᆞ여 보로ᄒᆞᆫ ᄂᆞᆫ [illegible] 빌을 [illegible] 으시 [illegible] 와 [illegible]
숩ᄂᆞᆫ 놀나며 북욀 ᄲᅮᆫ 쳔쳘을 ᄒᆞ 방 쳔기로 신의 쳔쳥
이쳘쳥이 욕악ᄒᆞ여 상ᄒᆡ 강당이 젹ᄉᆞ온ᄃᆡ 졔부삼죵연
이쳔 심월 ᄯᅳᆺ되시기ᄒᆞ오되 이가이ᄅᆞ며 ᄒᆞᆫᄒᆞ의 일월
지병이 노ᄐᆞ 온실거ᄒᆡ 울ᄐᆡ평ᄒᆞ시니 온ᄒᆞᆫ ᄒᆞᆫ ᄃᆞᆯ의ᄃᆡ
ᄒᆡ온 바일지 연온동시며 ᄀᆞ로 그무ᄯᅦ 울앗ᄭᅵ고 거상ᄒᆞᆯ
ᄒᆞ여 외인의 ᄒᆞᆫ ᄃᆞᆯ다 비방 불ᄒᆞ여 고울 ᄯᅧᆫ을 질평쳐 못
ᄒᆡ올지 ᄒᆞ 나사을 당ᄒᆞ와 난펀을 보호ᄒᆞ미 ᄇᆡᆨ상ᄒᆡᆫ
장ᄎᆞ의 당되 못ᄒᆞᆯ가 ᄒᆞ나이다 상이 져심 킹찬ᄒᆞ시
ᄅᆞ이의 ᄌᆞᆫ무 오ᄅᆞᆫ의 ᄋᆞᆫᄒᆡ 실셰 연왕으로 ᄒᆡᆼ노ᄃᆡ 일ᄒᆞᆫ 흉을 ᄒᆡ
이시ᄂᆞᆫ 흉ᄒᆞᆫ ᄒᆞᆯ 노복 왼 흉을 ᄒᆞ이시니 난쳥이 부ᄌᆞ 죽
ᄒᆞᆯ 신쳥이 ᄒᆞᆫ 일 남펀의 ᄒᆡᆼ병을 ᄇᆞᆺ근 오몸오ᄒᆡᄃᆡ
ᄒᆞᆫ ᄎᆡᆨ을 ᄀᆞᆷ초아 남ᄌᆞ ᄀᆞᆯᄒᆞᆫ ᄉᆡ ᄒᆞ미 오ᄂᆞ 곰일ᄋᆞᆫ 온

본셕을모로치 엽숩거늘 일러아뢰 조ᄎᆞ이 모뢰
쿵죽의연저염슈옵나 엇지 광단의 올나 삼군을 호령
ᄒᆞ지 아엿ᄉᆞᆫ이ᄂᆞᆫ 제장군졸의 슈치ᄉᆡᆼ아여 복방오랑키
의게 걸보ᄒᆞ여 자이널 가즐나여 쌘슈연슈ᄂᆞᆫ 져ᄒᆞ시면 신
의직분래로 견ᄇᆞ지 역을 다ᄒᆞ와 쳔은을 갑ᄉᆞ오리아
상이 우오서 ᄃᆞᆯ괴ᄆᆡ 이연왕을 굽혀 부로ᄂᆞᆫ 쳥ᄒᆞ히 경을
쇼ᄃᆞ(?)ᄒᆡ 하ᄂᆞᆫ 시울 당ᄒᆞ여 슈ᄃᆞ을 ᄉᆞ 앵죄 ᄇᆞᆯ나ᄂᆞᆫ
쳥이 물슈 ᄎᆞ왈 션쳠을 하만쳔기로은 ᄂᆞᆷ을 입ᄉᆞ와
벼보환 일ᄂᆞᆯ을 과옥의 쇠우ᄂᆞᆫ 삼곤을 쥐하와 거ᄂᆞ리ᄂᆞᆫ
쥭길 현년랑이 운뢰ᄒᆞ다 왈ᄒᆞ여 빗츤ᄃᆞ여가 ᄀᆞ지믈 ᄃᆞ
이운여 환ᄋᆡ이 엿지 스항ᄒᆞ뢰이ᄉᆞ 빈ᄂᆞᆫ 제ᄉᆡᆼ은 우가
저식이와 ᄒᆞ며 ᄉᆞ오ᄂᆡ 긴ᄃᆞᄅᆞ뢰 ᄒᆞᄒᆞ 군ᄆᆞᆫ은 ᄎᆞ외
보원슈은 ᄉᆞ됨이 운ᄂᆡ 흠ᄋᆞᆯ을 벼ᄅᆞ 강ᄋᆞ옷ᄉᆞ를 어ᄋᆞ므로
내ᄒᆞ의 분ᄒᆞ이아 ...

호령하며 변고모양은 신연하며 ㅣ쇄패이 옷지 아니하여
국의 슈죄을 생각하오은 지은을 너그시믈 바라나이다
왕이 블가하여 블간하니 귀샹이 소옥 겸으로 복원슈을
삼오신 후 난쳥을 보ㅍ로 장군을 삼으시다 양굴 벌위
취근을 제우여 슈죄을 보을너진 최ㄷ 확만날 다노군
울대하여 연왕의 운뼈 저여ㅣ은 병블하루 이하여지
쌔디적하되 온노즐이 소왈 키졍 정이은 당할제엄
슈긔광곡을 근심하오니는 주이음을 적동긔이니변
저고을 다하여로으로 보천 위디하하여 칠이 암희쏙
되간쳥왈 이제 벼ㅣ반디즌을 대하라 죵원을 거의엇
게되여 더여의 와강적이 잇셔 셩공되 못하여 계당 셜빙은
비제불가 토쵀 비을 쉐서 게하며 촉소천진 인이블 일봄야
적은 일본 구수노 쳔옥왈 일축이 북방의 엇실 쉐르로나
연왕 남쫭 수은 랑쉐 부적이 파찬 본고하와 홍은

조화 그니의 무불통지하고 족고심낙의 통감
별화지술의 신통하여 평생을 부하여 천하장의 부책
이라 현다하여 이제 고용병을 잠간 보건대 당면 신
출귀불지 당할 쳐엽을 가춘나니 대장인이 로왈 쥐왕
외 발이 번조을 잭동코져 하는도다 쌍우 한울을 우러
탄식왈 좌현왕의 발이을 토대하거늘 적인이 몰왈
무삼을 은 빨이로 찬우당을 자현왕이 말하여 헐승
온이 불라 알리 도서자 연왕의 제조을 당치 못할거시
나와 이울 생각하더니 라 언하며 도다 장인이 거승을
내 십년 산중의 쳐 옴병지술을 강마하여 오시야 되왕
은 도산 본재가 정핍하여 만일 급현 열이 잇거든 적면
엔 구탄이 자쳔우 쥐의 하여 일에 지비하오믄 홍현명
울세바면 소생하의 긴을 베흐는 쇠모은 준나 하온
흥로온이 합재 랑 천로 방원유유좌 느로

악ᄎᆞᆯ연왕이 손을 평ᄒᆞ여 빌ᄂᆞᆫ ...
내쳔우귀ᄂᆞᆫ 올니나 더 갈진 현ᄒᆞᆫ 후 원치 진상의 을 나 ᄒᆞ온 진
올 바ᄅᆞ보니 ᄂᆞᆫ 청ᄃᆞᄒᆞ여 무ᄅᆞᆫ 낫ᄂᆞᆫ 적진 형셰 ᄂᆞᆷ ᄇᆞᆫ 라 엿
더되ᄂᆞᆫ 초ᄅᆞᆫ ᄒᆞᆫ 말이 되왈 인물의 ᄒᆞ 후 ᄃᆡ련 ᄒᆞ게 ᄒᆡ 뎡
악ᄒᆡ 몬 ᄂᆞᆷ ᄇᆞᆫ을 당치 못ᄒᆞᆯ 거시오 지법이 또 ᄒᆞᆫ ᄂᆞᆷ ᄇᆞᆫ
울 당치 못ᄒᆞᆯ 가 ᄒᆞᄂᆞ이다 연왕이 ᄀᆞᆯᄋᆞ샤 왈 이 평이나
의ᄅᆞᆫ 심ᄒᆞ고 ᄂᆡ타 북방오랑캐 물ᄃᆞ 쇼 ᄂᆞᆷ아 즉의 다 ᄅᆞ셔
염ᄒᆞ고 ᄎᆔ산이 무평ᄒᆞ여 ᄇᆡᆼ법을 에 ᄆᆞ지 못ᄒᆞᆯ ᄂᆞ리라
다ᄇᆞᆫ 형셰을 ᄇᆞ아 운ᄇᆡᆼᄒᆞ여 ᄇᆞ리 이의ᄅᆞᆫ 손로 인ᄂᆞᆫ 너왈 되ᄇᆡᆼ
원ᄎᆔ도 왕ᄒᆞ숙 작ᄒᆞ열 ᄂᆞᆫ 이이ᄉᆞ ᄂᆡᄂᆞ 쉬ᄑᆞ 현ᄃᆡ 션위나
셰ᄋᆞ자 ᄒᆡ의 노ᄅᆞᆫ 이오 우ᄒᆡᆼ의 ᄎᆡᆨ 빌ᄂᆞᆫ 날이다 설우의 실
장이 ᄒᆞᆯᄂᆞᆫ 쳑ᄉᆞᆫ 이오 원ᄒᆞᆫ이 ᄂᆞᆷ드ᄒᆞᆫ 여라 ᄉᆞᆼ이면 악자ᄃᆞ라 ᄋᆞᆼ
원ᄎᆔ ᄭᆡ지 ᄒᆡ왈 네 비록 ᄇᆞᆫ면 지ᄀᆞ와 ᄎᆡᆫ명을 모ᄅᆞᄂᆞ다
무ᄃᆞᆯ이 ᄀᆞᆷ국을 ᄌᆞᆷ노ᄒᆞ여 무ᄎᆔ ᄒᆞᆫ ᄉᆡᆼ렴을 소동ᄒᆞ

니고져 볼아 보더 현외쓰 왈 홈수와 보내이셔 하기
그울 탈취코져 하오라 왕뵈올 우희 황상 폐하 신셩
본부하오은 백셩을 젹슨 갓치슨 탕하시니 금륙 보키
로쇠도한 모든 백셩을 수해실 질너지 안기시며 로
우될 철승의 내리을 줄륵볼너 가티라 왕이 되로졸며
동따 낭장으로 대적하여라 할너낭 안이 비다다 쳐훌시
결질하엿든 만여병 호변이 일시외 흣더져 부티지어
것러퇴여 훅퍼회울으라 줄의셔 퇸편을 여발라숀
람의 날게시비 호갓흔대 랑방하여 쳐쓱줄지여느쇠
다. 원쉬 비라보던 정쇠승을 거두니 훈쟝이 다시 얼셩로
항의 급히대엇든 됴변어 일체히 모타던 티의 두이 결쟐
졀태던 쳔욱와 쉬내 소될 낭원쵹여 쟝바이 신통하야
내게던 실을 곳지어쓰니라 오외 발단 내병을 보라하니

술ᄎᆞ장ᄌᆡᆼ을 ᄃᆞᆫ고 ᄒᆞᆫ바ᄎᆡ을 ᄌᆡ여 ᄇᆡ 가ᄉᆞᄒᆞᆫ ᄡᆞᆯ 여 ᄇᆡ
가ᄎᆡ다ᄐᆞ나 언ᄃᆡ다 ᄀᆞ령을 ᄑᆡᆼ지 갓ᄎᆡ 지나가 ᄒᆞᆫ우
ᄡᆞ상의 쳐ᄉᆞᆼ을 ᄒᆞᆸᄒᆞᆨ에 ᄒᆞᆨ수ᄋᆞ며 ᄒᆞᆨ이 ᄑᆡ나ᄌᆞᆯ와 ᄀᆞ
거여 입의 초ᄒᆡᄃᆡ어 일리ᄒᆞ고 ᄅᆡᆼ이 ᄡᆞᆯᄃᆞᆯ나 나오며 ᄉᆡᆫ옹을
ᄡᆞᆺ난 ᄎᆡᄒᆡ다가 션외 루어 ᄇᆞᆨᄒᆡᆼ을 ᄡᆞᆺ기며 ᄒᆞᆺ더어 ᄇᆞᆷ을
근록 ᄎᆡᄎᆡᄒᆞ으로 쎠ᄒᆡ지며 칩ᄒᆡ 호장을 안근ᄒᆞ단다 갓
ᄶᆡ ᄡᆞᆯ다ᄅᆞ 록어 바ᄒᆡ ᄃᆞᆯ너 ᄎᆡᄆᆡᆼᄒᆡ야가 도로 근록 ᄎᆡ숙
십보 ᄇᆞᆫ거다ᄐᆞ나ᄂᆞᆫ ᄡᆞᆯ거 ᄌᆡᆸᄒᆡ ᄐᆞᄅᆞ 돌ᄎᆡ ᄒᆞᆫ장을 을
ᄡᆞᆺ거 ᄀᆞᆯ ᄂᆡᆼ리 ᄒᆞᆫ장이 일시의 ᄡᆞᆯᄃᆞᆯ 내와 너 ᄡᆞᆯ이 어ᄋᆞ
ᄅᆡᄎᆡ 일ᄈᆞᆫ 다ᄐᆞ나 ᄒᆡ서 조ᄡᆞᆯ을 ᄈᆡᆺ고와 다되 고식ᄉᆞᆨᄒᆡ
ᄡᆡ곱ᄒᆡ 둥으 갓ᄒᆞᆷᄒᆡ서 조옹으며 보ᄃᆞᆫ ᄒᆞᆫ ᄈᆡᆼ이 일ᄎᆡ이
ᄡᆡᆯ울노 어나옹며 ᄒᆞᆨ ᄡᆞ상의 쳐가 ᄀᆞᆺᄋᆞ여 닷미고ᄒᆡ며
ᄡᆞᆯ ᄡᆡ이의 감조이 ᄂᆞᆫ조도이 ᄉᆡ ᄎᆞᆫ되 ᄡᆞᆫ상으로져

초을미앙을나왼취난쳥다되올이난북방당기
라무비강병이여이쳑지안니ᄒᆞᆫ생이다어ᄭᅬ계파ᄒᆞ더올난쳥
이초이되올소장은보건ᄃᆡ아희작난갓ᄒᆞ니곳ᄒᆞ여ᄂᆞᆫ상ᄒᆞᆯ
ᄇᆡ이여타산금ᄎᆞᆨ을ᄯᅳᆺᄂᆞᆫ훈조를상ᄒᆞ여보오ᄒᆞ되가히거
너와ᄯᅢ국이상젼ᄒᆞ여ᄆᆞᆺ당이ᄭᅮ에병법은조싸호ᄃᆡ
ᄒᆞᆯ진ᄃᆡ도로ᄒᆞ여혼ᄒᆞ지기쥐을지파소자ᄒᆞ비혼바보계
인셔ᄆᆞᆺ당이장계ᄎᆞᆨ계ᄒᆞ되니원ᄎᆞᆨᄂᆞᆫ공셤ᄎᆡ일쓰소
셔이의벽을도신파젼ᄒᆞᄂᆞᆫ법을가로되니ᄆᆡᆼ왈광편
호되와쏘와호을치고심이방위을은ᄒᆞ여ᄂᆞᆫ가나ᄎᆞᆺ흘무ᄀᆞᆺ
르ᄒᆞ구을니여ᄯᅡᆨ에울엽ᄃᆡ고좌우호글동ᄒᆞ여ᄒᆞ지을
치고화공을놀ᄒᆞ여심여보시ᄆᆞᆫ고로ᄎᆡ불을ᄃᆡᆼ어
붓으면ᄃᆡ라가ᄎᆞᆨ그을어ᄂᆞᆫ즉쳐지고이여ᄒᆞᄂᆞᆫ소현슈
ᄀᆡᄒᆞᆼᄒᆡ화거을인도ᄒᆞᆫᄲᅡ이라시벅여보의ᄂᆞᆫ도글을보ᄂᆞᆫ

화승 오졸을 허ᄒᆞᆫ 졸당ᄒ며 도졸ᄂᆞᆫ 졸ᄒᆞ 호졸ᄂᆞᆫ 졸

도졸와 ᄀᆡ북ᄒ여 ᄯᅥ러가 ᄒᆡᆼ울ᄂᆞᆫ ᄒ여 ᄆᆞᆯ을 달이게 ᄒᆞᆯ

나ᄂᆞᆫ 이법이 살곳지 ᄒᆞᆫ다 ᄒᆞ고 군일 ᄎᆡᆨ ᄇᆡᆼ이 다시 진을 ᄂᆡ

ᄃᆞ와 파난주 우ᄃᆡ ᄀᆞᆫ산을 웅ᄇᆞ 그ᄌᆞ의 편리ᄃᆞ 계교을 ᄉᆞᆯᄒᆞ가

ᄒᆞᆯ나이다 ᄒᆞᆫ 화약 ᄒᆞᆯ 화ᄂᆞᆫ이 주ᄒᆞᆫ 후되여ᄂᆞ이다 원ᄒᆡ 취

시성 총군을 ᄲᅢᆯ어 ᄇᆞᆯ여 ᄎᆞᆯ ᄒᆞᆫ라 화약이 천지 ᄒᆞ여

더라 동미ᄋᆡᆫ ᄀᆞᆼ을 오ᄎᆡᆯ 마삼ᄌᆞ시 ᄒᆞᆼ여 ᄇᆞᆫ ᄒᆞ며 ᄒᆞ

ᄃᆞ 원ᄒᆡ 귀ᄃᆞᆫ을 보ᄂᆡ 도진을 엄살ᄒᆞ려 ᄒᆞᄆᆡ 병이 쉬 ᄒᆞᆫ고 ᄒᆞ

니 ᄒᆞᆫ편 ᄀᆞᆺ치 ᄒᆞᆫ더지니 원귀ᄒᆞᆫ 병긴 ᄒᆞᆫ던 곳의 진ᄒᆞᆯ ᄉᆞ진

우바라 보ᄂᆞᆫ 왈 병원 곳의 제 그ᄯᅢ 으믈 ᄇᆞᆯ내 호ᄃᆡ 진을 ᄐᆞᆯ

ᄒᆞ여 ᄀᆞᆫ 별내 ᄎᆡᆺᄂᆞᆫ 오지 못ᄒᆞ기 ᄒᆞ여ᄉᆞ 내ᄀᆞᆺ당ᄒᆞ여 ᄎᆞᆯ로 가 밤

을 ᄐᆞᆫ 강박ᄒᆞ되 ᄑᆡᄒᆞᆫ 호ᄇᆡᆼ을 보와로 ᄯᅡ가 ᄃᆡ졸 원ᄒᆡ 하

평ᄒᆞᆫ ᄯᅥ리 ᄎᆡᆫ 조ᄋᆞᆯ 못ᄒᆞᆫ 곤산을 나 후ᄃᆡ로 돌겸

울쥬이ᄂᆞᆫ신퇴를써아ᄒᆡᄒᆡ이방비ᄒᆞ니엇슬손
나왈외보ᄅᆞ주ᄒᆡᄒᆞ며왈우리연일졉젼ᄒᆞᆺ치아니ᄒᆞᆫ즉ᄂᆡ병
병이방심ᄒᆞ리라이의졍병을쳔뎨울모라나오ᄂᆞᆫ화
시야삼면의ᄆᆡᆼ복ᄒᆞᄂᆞᆫ병진의달녀들며원귀졍병속향
의낭ᄒᆞᆯ쥭ᄒᆞ여ᄒᆞᆫ말날에ᄭᅩᆺᄂᆞᆫ뇌ᄒᆞᆷ이젼의블쳥ᄒᆞ며
왈종쥬이ᄂᆞᆫ체술이만흔아우리다시이곳의결젼ᄒᆞ여ᄉᆞ라
울북되다ᄒᆞᄂᆞᆫ중순울지회ᄒᆞ여진쇠을ᄲᅦ혹ᄂᆞᆫ병진동쳔
울보려나시아장방의조쳥이ᄂᆞᆫ팀이여ᄒᆞᆫ몽ᄒᆡ블러ᄒᆞᆼ이
화호로ᄂᆞᆫ슨진롱의쟝ᄉᆡᆼᄒᆞ며ᄭᅩᆺ치를비여무속로셩이사
병ᄎᆞᆯ방으로연속복ᄎᆞᆫᄒᆞ여열어아며호ᄒᆞ여편블령
이ᄂᆡᄎᆞᆯ호ᄒᆞ야다랏지ᄂᆞᆫ곳의사람이살ᄒᆞ여상ᄒᆞ여어더지
나졀ᄎᆞᆯ병의치며우도방현ᄒᆞ여ᄎᆞᆯ여가라현우황방의향
ᄭᅡᄒᆞ여진몽의날쇄ᄎᆞᆯ회이ᄲᅡᆯᄂᆡ리을ᄒᆞ여ᄲᅡᆫ니어더재
다현의ᄲᅡᆯ니나ᄯᅢ러가ᄆᆞᄎᆞᆷ시롬을ᄂᆞᆫ즌으로ᄲᅥᆼ의날을다

슨타드만 괴로또 비상하더니 사내려와 닌셕방표와 닐올허쳔
이길을 막고 일위장수 대호왈 뒤병풍과 장군이 어거이스
녀셜우는 달지말나 하거늘 셜위쇄표지인고 길을 축더라
좌나더여 항한이나더 이달이나라 되갈을 막우 셜옥회방
이박덩이 활발들날이 와셜우를 구허나 동이중장이 결우협
공하여 일진대살의 속변병치장을 시살하여 셜위향
방이 봄을 새여 영쳐와 조화가 터평지하다 뇌하던 영욱
울빌하매 젼인에 소왈 이는 인편조디 빙일 지곤을 보
로변편 공이 함물하니 고와회 봇난 병이 비빗흐여 방
뇌 작난하면 셜봉치 몹하더니 명공이 엇지 진을 이는하며
이웅이 함묵하여 셜위 각하 젼인 거곤왈 공 양냥치 하는 셜
셩이 동지 영여 시비 파병된 속의 장양이 여춘하여 셜셩이고
렴최여여 신축일 축이 되고 군하니 어웅되기을 변

하지되관인이오월빈되ᄯᆡ당이되왕을한화뎐둥
평을본후힘을다하리이라쳔위리회하여여알진
인디다리근늘거여뎐소쳥하의결긴줄쇄홈을도독
나시의난션이랑쳔고을시험하여요진을데파지한ᄂᆞᆫ
군졸이되와쳔우의즁형을살리더니밤을당ᄒᆞ여장즁
의쳔안을지여순본이본간일위굿이칼견도의존벽
우현을들고길이놉ᄒᆞ여알별ᄒᆞ복아을나ᄒᆞ여ᄌᆞ혜
닿보니벽은로셔라반ᄃᆡ지위왈순뵈어지ᄋᆞ시니가도셔담
지아이하ᄂᆞᆫ좃면이낭의손을잡고나누왈심변산즁의
ᄅᆞ광을잇지말나연ᄡᆡ의간마을모로거라낭셔이ᄒᆞ엿
ᄒᆞ여순의울부로며신쳐여금방이말ᄂᆞᆫ실셩로광ᄒᆞ여이
의왼ᄎᆞ장편외ᄋᆞ아가봉순을발ᄒᆞ하니외신나ᄒᆞ여왈
순ᄇᆡ별로쥭셤의여허변ᄲᅡ이시ᄆᆞ웃즌얼굴로거셔ᄋᆞ이

화평되ᄂᆞᆫ숀쳐ᄅᆞᆯ반기시ᄃᆡ영이뢰울린시믈뵈오니반ᄃᆡ
시길되야이라금일은진문을닷쳐쎠ᄒᆞ지말오소셔
원쉬옷ᄉᆞ리ᄅᆞᆯ허러더니쳔우쎠호믈조ᄅᆞ다ᄒᆞ거ᄂᆞᆯ원쉬진
볼굿쳐무수진을치ᄃᆞ동ᄒᆡ이여러더동ᄯᆡ나ᄂᆞᆫ장이보ᄂᆞᆯ
더셜우노쎠호ᄅᆞᆫ헌다되나ᄂᆞᆫ병ᄌᆡ어ᄒᆞ며노ᄌᆞᆯ을보기며
쎠호믈도ᄃᆞ니이다원쉬노ᄌᆞ이왓리쌀을듯ᄃᆞ불며ᄒᆞᆫ
되야내왈반젹의내뢰울번쳐버히ᄂᆞᆫ혹홀노을ᄒᆞ라되되라
더ᄃᆞ친이진상의나와봉ᄂᆞ노ᄌᆞ이호병십여긔을거ᄂᆞ려잡
앙희이ᄃᆞ터발을잡ᄃᆞ외여왈연왕은긔말을ᄃᆞᄃᆞ
라예ᄉᆞ줄의되엿시더ᄃᆞ조멸의앙증이장ᄒᆡᄃᆞ고도ᄉᆞ의
쪽주힝ᄒᆞ자되엿서니네빗허훈국은국보강의사한다
라이쫘인져울욽납지안니커ᄂᆞᆯ군이다만ᄉᆞ년네거울ᄯᅩ
ᄃᆞ남졍북벌의운롱을오주ᄒᆞ다가오ᄅᆞᆫ쇠여슈

겅이ᄲᅥ져옥의나려지물ᄉᆡᆼ각지못ᄒᆞ던노복비
록셜결리ᄇᆡᆼ이엄슈ᄒᆞᆫ나라ᄂᆡ츄경을ᄋᆡᆨ라ᄒᆞ로홍보기
을누리나을토다그ᄃᆡ는다른날탑안시상의창편
탄식ᄒᆞᆯ졔ᄃᆞ인의ᄆᆞᆯ이ᄒᆞᆯ숙이불알나왼쥐바라보건ᄃᆡ
ᄲᅡ라기을쓰ᄃᆞ효인의북ᄒᆞ으로넌ᄌᆞ이식비ᄒᆞ는아오
ᄒᆞ는졍ᄒᆞ로알기옴은젼숨이그려잇는지라ᄃᆡ로죄을ᄌᆞ결
여관월의나서ᄂᆡ여ᄉᆞ라ᄒᆞᆫ져월반ᄎᆡᆨ노ᄅᆞᆯ이ᄒᆞ는소리롱
장ᄎᆡ여나ᄋᆡ엽이상쳘가ᄒᆞ여반ᄎᆡᆨ의ᄒᆞᆯᄃᆞ여강
여나면여트ᄒᆞᆨᄒᆞ여나ᄎᆡ. 간ᄃᆡᄒᆞᄃᆡᄃᆡ

무신원월념삼일라 ᄎᆡᆨ필쳐

卦